

高麗中期 法相宗 사원의 불교조각

최성은(崔聖銀)

I. 머리말

II. 고려중기 법상종 사원의 불교조각

1. 개성 玄化寺
2. 서울 三川寺
3. 원주 法泉寺
4. 김제 金山寺

III. 고려중기 법상종 사원 불교미술의 성격

IV. 맺음말

덕성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

주요 논저:

『開泰寺 石造三尊佛立像 研究 - 새로운 統一王朝 高麗의 出現과 佛教彫刻 -』, 『美術史論壇』 16 · 17(2003); 『신라 皇龍寺 중금당 장육삼존불상에 대한 연구』, 『新羅史學報』 23(2011); 『百濟 7세기 塑造像의 樣相과 傳播 - 신라 및 일본 白鳳期 소조상과 관련하여 -』, 『百濟文化』 49(2013); 『平壤 土城里 출토 陶製佛像范과 高句麗 佛教彫刻』, 『美術資料』 88(2015);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서울: 일조각, 2013) 등

고려중기에 융성했던 법상종의 주요 사찰로는 현종이 창건한 현화사를 비롯해서 삼천사, 법천사, 금산사 등을 꼽을 수 있으며, 현화사 칠층석탑이나 법천사 지광국사탑, 금산사 석조연화대좌에서 보이는 화려하고 귀족적인 조형성은 당시 법상종 불교미술의 높은 수준과 성격을 말해준다. 비문에 기록된 현화사의 면모는 '도솔천궁'에 비유될 정도로 장엄하였으며, 금산사는 章疏를 간행하는 광고원구를 비롯해서 봉천원구가 고려중기에 신축되었다.

오늘날 전해오는 이들 사찰의 불교조각 작품은 영세하고 단편적인 자료에 불과하나, 문헌기록과 새로 출토된 비문자료, 현존 유물들을 통해서 고려중기 법상종에서 미륵과 아미타를 모시고 교화에 중점을 둔 태현계 법상종의 전통이 강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나말여초 후삼국기를 거쳐 고려초기에 이르는 시기에 유행하였던 거대 미륵의 표현이 흔히 법상종과 관련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으나, 적어도 고려중기의 법상종 사찰과는 연관지를 개연성이 없다는 판단이 서게 되었다. 또한 당시 여러 법상종 사찰에서 설행되었던 아미타불회와 미륵회 등은 설법인을 결한 아미타불상과 통형의 보관을 쓰고 가사형태의 착의형식을 한 미륵보살의 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중기 법상종 사찰의 석조미술에서 나타나는 우아하고 귀족적인 양식이 법상종 사원 미술의 특징이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왕실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융성하였던 법상종 사찰이 당시 佛事의 주요 무대가 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아울러 고려초기 불교미술에서 볼 수 없던 우아한 북송풍의 귀족적인 요소는 현종의 측근에 머물던 채충순, 주저와 같은 오대, 북송 귀화인들의 활동과 함께, 고려의 적극적인 對宋 불교문화 교류의 결과로 나타났던 것으로 이해되며, 여기에 더하여 현종대 이래 부상한 신라 舊귀족 세력의 세련되고 귀족적인 취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주제어: 고려, 법상종, 현화사, 삼천사, 법천사, 금산사

高麗中期 法相宗 사원의 불교조각

최성은(崔聖銀)

덕성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

I. 머리말

고려 중기는 초조대장경 간행이라는 국가적 사업을 통해 불교계가 활발하게 움직이던 시기이다.¹ 현종(1009-1031년 재위)이 수도 개경에 창건한 현화사는 왕실의 후원을 배경으로 초조대장경 간행을 주도하는 사찰로서 확고한 위치에 있던 법상종의 중심도량이었다.² 이에 힘입어 법상종의 위상은 높아졌고 지방의 주요 법상종 사찰들도 현화사와 연결되어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

당시 법상종 사찰에서는 정기적인 設齋를 비롯해서 사찰의 중수, 畫像의 제작·유포와 관련된 다양한 佛事가 이루어졌으며, 북송의 불교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수준 높고 귀족적인 문화를 누렸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 살펴볼 현화사를 비롯한 삼천사, 법천사, 금산사는 현화사 주지를 역임했던 대지국사 법경, 지광국사 해린, 혜덕왕사 소현의 下山所였던 절로

1 고려중기의 시기구분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으나 사상사적 구분에 따라 제 1기는 태조-목종, 제 2기는 현종-의종, 제 3기는 무인집권기, 제 4기는 원간섭기-고려말로 구분하고 있고 본고에서는 제 2기를 중기로 구분함. 朴龍雲, 『高麗時代史』 上(서울: 일지사, 1985), pp.11-14 참조.

2 법상종은 현장이 전래한 신유식사상에 의거하여 영원히 성불할 수 없는 중성도 있다고 하는 五姓各別說을 주장하고 제법의 차별상을 일으키는 연기론적 측면에 교학의 중점을 두고 있는데, 새로운 불교학으로서 불교계에 큰 파장을 던지면서 일세를 풍미하였다(김두진, 「高麗初 法相宗과 그 思想」, 『韓洵勳博士停年紀念 史學論叢』, 1981, pp.215-238 참조). 법상종은 유가종, 유가업, 자은종 등 여러 용어로 불리고 있고, 고려시대에는 '유가업'이라고 불린 경우가 많았으나 본고에서는 한국미술사학계에서 사용하는 '법상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고려중기의 손꼽히는 법상종 사원이다.³ 그런데 현재 이 사찰들의 유구와 유물의 상황은 같지 않다. 금산사는 사찰은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나 발굴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천사나 삼천사는 사찰은 폐사되었지만 발굴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곳이며, 현화사는 폐사되어 유구만 남겨진 상태로 남북분단 이후 아예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고려중기 법상종 조사들의 비문에는 당시 사원의 규모가 상당했고 수준높은 미술품으로 장엄되어 마치 미륵보살이 머무는 ‘도솔천궁’에 비유될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약간의 석조유물 외에 전하는 것이 없어서 법상종 사원의 불교조각에 대한 연구가 지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본고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네 사찰의 석조 불교 미술에 대하여 문헌과 현존유물, 사진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그 역사적, 양식적 특징을 개별적으로 추론해 보고, 또 이후 고려 불교미술의 전개에 있어서의 영향문제를 살펴보겠다. 자료의 한계와 논증의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II. 고려중기 법상종 사원의 불교조각

고려 중기의 법상종 사원인 개성 현화사, 삼각산 삼천사, 원주 법천사, 김제 금산사의 역사와 불교조각에 대해 살펴보면서 그들이 가지는 양식적, 역사적 관련성을 고찰하고 그 특징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1. 개성 현화사

현화사는 현종(1009-1031)의 부모인 安宗과 효숙태후의 追善을 위해 창건된 사찰이다. 현종은 안종 郁(? - 996)과 景宗의 계비였던 효숙태후(獻貞王后) 皇甫氏 사이에서 불륜으로 태어났다는 출생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傅姆가 양육하던 어린 대량원군[현종]은 어린 시절 약 3~4년 정도

3 慧炤國師 鼎賢(972-1054)은 덕종연간(1032-1034)에 법천사 주지로 부임하였고 현화사의 2대 주지가 되었다. 그의 하산소인 안성의 七長寺도 손꼽히는 법상종 사찰이었으나 고려중기의 유물이 탐비 외에는 전하지 않는다. 『七長寺慧炤國師碑』, 허홍식 편, 『韓國金石全文』(서울: 아세아문화사, 1984), p.490; 남동신, 『七長寺慧炤國師碑』, 『한국중세사연구』 30(2011), pp.487-503; 同著, 『七長寺慧炤國師碑銘을 통해 본 鼎賢의 생애와 사상』, 『한국중세사연구』 30(2011), pp.468-486; 엄기표, 『七長寺 慧炤國師碑의 양식과 미술사적 의의』, 『안성 칠장사와 혜소국사 정현』, 남동신 편(서울: 사회평론, 2011), pp.91-127 참조.

아버지의 유배지인 사수현에 보내져서 함께 살았으나 안종이 죽자 천추태후에 의해 강제로 崇敎寺⁴로 출가하게 되었고 이어 삼각산 神穴寺⁵로 쫓겨나 힘든 소년기를 보냈다.

현종은 재위 8년(1017)에 先考 안종의 묘를 사수현에서 옮겨와 개경 동북쪽 金身山 아래 乾陵으로 이장하고, 先妣 효숙태후의 묘를 영축산 아래 元陵에 장사지냈으며, 이 두 능의 동쪽에 있는 영축산 아래에 현화사를 창건하였는데, 이 절은 陵寺이면서 부모의 진영을 모신 眞殿사원이었다.⁶ 현종 9년(1018)에 창건된 현화사에는 2년 뒤 칠층석탑이 건립되었고, 그 이듬해에 碑가 세워져 왕이 친히 '영축산대자은현화사'라는 篆額을 썼는데,⁷ '大慈恩玄化寺'라는 사찰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화사가 당시 자은종, 즉 법상종[瑜伽業]을 대표하는 중심사찰이 되었음을 말해준다. 초대주지로는 당시 道僧統으로 왕사에 오른 삼각산 三川寺의 주지 法鏡이 임명되었으며, 매년 봄 4월에 국가를 위해 미륵보살회를 개설하고 매년 가을 7월 15일에는 현종의 부모를 위해서 미타불회를 개설하였다.⁸ 이후, 덕종이나 문종이 부친인 현종의 명복을 비는 諱辰道場이 현종의 忌月인 5월에 현화사에서 개설되었던 것에서도⁹ 현종의 원찰로서 현화사의 위상을 알 수 있다.

4 天秋太后와 金致陽이 大良院君을 꾀박하여 승교사로 출가하게 한 것은 목종 6년(1003)이며, 승교사는 穆宗의 顯利로 창건된(1000년) 법상종 사찰이었으며 眞殿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목종의 부왕인 경종 또는 前王인 成宗의 진전이 모셔져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고려사』 권 3, 목종 3년, 6년; 任明周, 「高麗 顯宗代의 玄化寺眞殿」(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p.8 참조.

5 신혈사는 1090년 宣宗이 신혈사에서 오백나한재를 베풀거나 1099년과 1110년에 각각 숙종과 예종이 방문했던 기록으로 보아 고려시대에 융성한 사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高麗史』 권 11, 숙종 4년 윤 9월 임진; 同, 권 13, 예종 5년 윤 8월 丙辰; 『太宗實錄』 권 14, 太宗 7년 12월 辛巳; 『신증동국여지승람』 권3, 한성부, 고적조; 문명대, 『삼각산 진관사 - 진관사의 역사와 문화』(한국미술사연구소, 2007), pp.18-20 참조.

6 『高麗史』 권4, 현종 9년 6월; 「玄化寺碑」, 『韓國金石全文』 上(1984), pp.445-446. 현종대의 불교와 현화사에 관해서는 김두진, 앞의 논문(1981), pp.215-238; 최병현, 「高麗中期 玄化寺의 創建과 法相宗의 隆盛」, 『韓洵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1981), pp.239-260; 강병희, 「高麗 顯宗代 銘文石塔의 一考察」(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同著, 「高麗 玄化寺址 七層石塔에 대하여」, 『韓國史의 構造와 展開 - 河炫綱教授 停年紀念論叢』(2000), pp.183-204; 허홍식, 「瑜伽宗의 繼承과 所屬寺院」, 『高麗佛敎史研究』(서울: 일조각, 1986), ; 김남윤, 「고려중기 불교와 法相宗」, 『한국사론』 28(1992), pp.109-150; 김두진, 「현종대 이후 화엄종, 법상종의 대두와 불교계의 모순」, 『한국사 16 -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국사편찬위원회, 1994), pp.45-61; 임명주, 앞의 논문(1997), pp.9-36; 강병희, 「高麗 玄化寺址 七層石塔에 대하여」, 『河炫綱教授停年紀念論叢: 韓國史의 構造와 展開』(서울: 혜안, 2000); 문명대, 「高麗 法相宗 美術의 展開와 玄化寺 七層石塔 佛像彫刻의 研究」, 『講座美術史』 17(2003), pp.9-23; (同著, 『한국의 불상조각 4 - 삼매와 평담미』(서울: 예경, 2003), pp. 149-159, 재수록; 조경시, 「高麗 顯宗의 佛敎信仰과 정책」, 『한국사상사』 29(2007), pp.175-209; 최성은, 「고려 현종대 석탑부조의 연구」, 『講座美術史』 30(2008), pp.209-246; 남동진, 「고려 전기 금석문과 法相宗」, 『佛敎研究』 30(2009), pp.153-189; 김창현, 「고려 현화사비 분석」, 『목간과 문자』 9(2012), pp.69-101 참조.

7 현종은 비의 篆額을 직접 쓰고, 비문은 중국에서 귀화해 온 한림학사 周佇가 撰했으며, 陰記는 참지정사 蔡忠順이 撰하고 글씨도 썼다. 『高麗史』 권 4 현종 12년 8월; 「大慈恩玄化寺碑」, 허홍식, 『韓國金石全文』 中世上(서울: 아세아문화사, 1984), pp.441-453.

8 「大慈恩玄化寺碑陰記」, 『韓國金石全文』 中世上(서울: 아세아문화사, 1984), p.450.

9 『高麗史』 권 5, 德宗元年 5月; 同, 권 7, 文宗元年 5月.

공사를 시작하고 4년만인 현종 12년(1021)에 준공된 현화사에는 현종의 부모와 왕후¹⁰의 진영이 봉안된 진전을 비롯해서 불전[금당], 법당[강당],¹¹ 승경전, 봉래전 등이 세워졌고,¹² 金鐘과 法鼓의 주조도 모두 마쳐서 왕이 친히 타종하였는데, 堂殿의 장엄함이 마치 兜率天의 내원궁 같았다고 한다.¹³ 창건공사는 정변을 통해 현종을 왕위에 올린 공신세력의 핵심이었던 崔士威(961-1041)가 담당하였고,¹⁴ 이후 지광국사 海麟이나 그의 제자인 혜덕왕사 소현이 주지를 맡았을 때도 새롭게 중수되었으며, 그 때의 모습도 도솔천궁을 옮겨놓은 것 같다고 표현되고 있다.¹⁵

오늘날 전하는 현화사의 석조문화재 가운데 칠층석탑이나 비를 보면 창건 당시 최신의 도상과 양식이 반영되었을 뿐 아니라 최고의 기술력이 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⁶ 현화사 佛事의 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조형물로는 칠층석탑과 현화사비, 석등이 전하며, 일제강점기 때 찍은 석불좌상의 유리건판사진이 전하고 있는데,¹⁷ 여기서는 석탑의 부조와 석불좌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0 元貞王后 金氏는 현종의 제 1妃로 成宗의 딸인데, 현종 9년(1018)에 죽었다. 『高麗史』 권 88, 后妃 1-元貞王后.

11 법당에 대해서 강당이라는 의견(김창현, 앞의 논문, 2012, p.97)과 대장경각이라는 의견(임명주, 앞의 논문, 1997, pp.17-18)이 있는데, 중국의 唐·宋代 사원의 배치를 기준해서 본다면, 이 시기의 '法堂'은 승려가 설법을 하는 전각의 의미로서 '講堂'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중국 당대 선종사원 성립에 관한 문헌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31, no.11(2015), pp.143-152 참조.

12 현화사에 세워진 전각의 이름은 「玄化寺碑陰記」에 기록된 각 전각의 記文의 찬술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大藏經記는 姜邯贊, 金殿記는 崔沆, 鐘銘은 李襲, 眞殿記는 郭元, 崇靈殿記는 金猛, 현화사 詩都序는 周佇, 眞殿讚詩都序는 崔沖, 蓬萊殿記는 孫夢周에게 맡겨서 짓게 하였다. 진전에 부모의 진영을 안치할 때는 현종이 직접 諡冊을 찬술하였고 眞殿讚도 직접 지어서 殿內的 동, 서벽위에 쓰게 하고, 시는 현판에 써서 眞殿 문밖에 따로 걸게 하였으며, 친히 시를 지어 法堂 문밖에 새겨 걸어 길이 전하게 하였다. 「玄化寺碑陰記」, 허흥식, 앞의 책(1984), pp.452-453; 임명주, 앞의 논문(1997), p.16.

13 「玄化寺碑」, 허흥식, 앞의 책(1984), pp.445-446, p.450.

14 현종을 올린 공신들로는 최사위, 윤징고, 崔沆, 蔡忠順, 姜民瞻 등을 꼽을 수 있다. 최사위는 왕의 측근에서 현화사를 비롯한 여러 건축조영 사업의 감독을 맡아 지휘했다. 『高麗史』 권4, 현종 2년 10월; 『高麗史節要』 권3, 현종 18년 2월; 김용선, 『譯註高麗墓誌銘集成』(춘천: 한림대학교출판부, 2006), pp.25-27; 김혜완, 「고려 현종대 崔士威의 건축활동」, 『박물관지』 9(2002), pp.70-71; 김창현, 앞의 논문(2012), pp.76-92 참조.

15 해린은 사찰의 보수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게 하여 불화를 그리고 범종을 주조하고 하는 등, 法具 일체를 마련하여 사찰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한다. 李智冠, 「원주 법전사 지광국사 현묘탑비문」,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 2』(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5), p.353, p.381. 慧德王師 韶顯 역시 宣宗元年(1084) 현화사 주지로 취임하여 현화사의 보수를 계획하고 왕에게 상주하여 繕理官을 설치하고, 선종 6년(1089)에 공사를 시작하여 숙종 원년(1096)에 준공하였다.

16 현화사 석탑과 부조에 대한 소개와 연구로는 高裕燮, 「開城 玄化寺塔」, 『韓國塔婆婆研究各論草稿』(1976), pp.18-25; 關野貞·常盤大定, 『中國佛教史蹟』 5(東京: 佛教史蹟研究會, 1927), 圖 65; 강병희, 앞의 논문(2000), pp.183-204; 문명대, 앞의 논문(2001), pp.9-23; 최성은, 앞의 논문(2008), pp.209-246(同,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서울: 일조각, 2013), pp.180-228 재수록) 참조.

17 현화사지에 대한 조사는 1934년 米田義代治와 樞本龜次郎가 조사하였는데, 금당지 주변에 초석과 석재들이 흩어져 있던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칠층석탑과 석조부재, 당간지주의 사진과 도면은 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개성부 개풍군 고적유물조사 북명서」에 실려 있다. 권강미, 「유리건판에 비친 일제강점기 북한지역 불교문화재 조사」, 『유리건판으로 보는 북한의 불교미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2집』(2014), p.415.

1) 현화사 칠층석탑 부조

개성시 장풍군 월고리(개풍군 영남면 현화리 현화동) 영축산 아래의 현화사지에서 개성 방직동에 있는 고려박물관 정원에 현화사비와 함께 옮겨진 현화사칠층석탑(도 1)은 탑신부의 각층에 佛會의 장면이 표현되어 있다.¹⁸ 1층 탑신의 각 면에는 표면에서 둥글게 융기한 물당을 써서 입체적으로 구획된 ‘龕室形 眼象’¹⁹ 안에, 중앙 본존여래좌상의 좌우에 제자상 2구, 보살상 2구, 4천왕과 공양상 2구의 모두 11존으로 이루어진 불회의 장면이 高浮彫로 조각되어 있는데, 동서남북의 네 면에 새겨진 불회의 장면은 동일하다(도 2). 1934년의 조사 당시에도 남면을 제외하고 동, 서, 북면은 풍화로 마멸이 심했던 것으로 보이며, 1939년에 촬영된 유리원판 사진을 보면 상태가 좋지 않지만 부조는 대체로 온전하게 보이는데, 지금은 훨씬 더 훼손이 진행된 상태이다.²⁰



도 1. 玄化寺 칠층석탑, 고려 1020년, 개성 고려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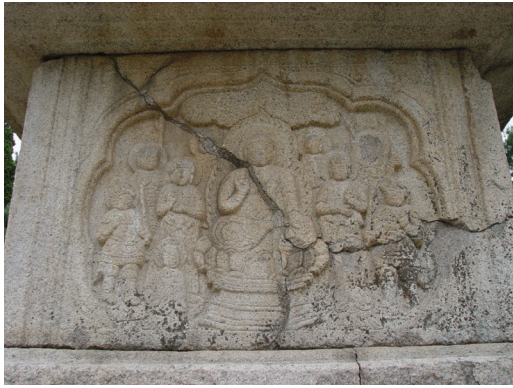
1층 탑신의 네 면 가운데 비교적 상태가 좋은 편인 남면조각의 유리원판 사진(도 3)과 현재의 모습(도 2-2)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본존 여래상은 양감이 풍부한 둥근 얼굴과 입체감이 느껴지는 체구에 편단우견식으로 표현된 대의에는 옷주름이 곡선적인 음각선으로 구불구불하게 새겨져 있으며, 왼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고 오른손은 가슴높이로 올려 엄지와 무명지를 맞댄 특이한 형태의 설법인을 결하고 있다. 본존상을 에워싼 화염광배 위에 새겨진 작은 잎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나무는 龍華樹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불회의 장면은 하생한 미륵여래의 3회 설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²¹

18 탑 탑신의 각면에 佛會의 장면이 부조된 것은 현화사석탑 以前의 다른 예가 없어 우리나라 불탑 변천에 획기적인 변모라고 평가되고 있다. 문명대, 앞의 논문(2001), p.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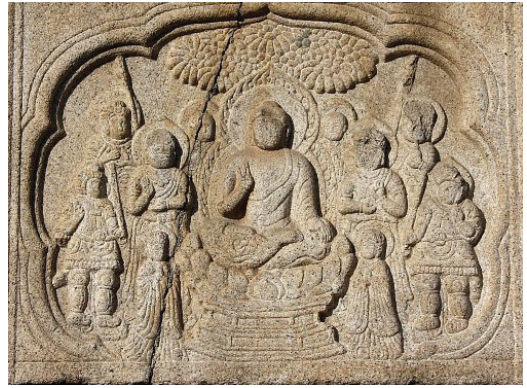
19 “감실형 안상”이라는 표현은 강병희, 앞의 논문(2000), p.186에서 사용한 것을 따른다.

20 현화사지에 세워져 있던 석탑의 방향을 기준으로 볼 때, 1층 탑신의 네 면 가운데 남면은 면석에 사선으로 균열이 나있고, 동면은 본존상의 몸체를 통과하여 사선으로 생긴 깊은 균열부위가 시멘트로 보수되었으며 향우측의 하단의 조각이 훼손되었다. 서면은 본존상과 향우측의 존상들은 잘 남아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훼손되어 시멘트로 처리되어 있고, 가장 훼손이 심한 북면은 향좌측의 사천왕상과 보살상의 하체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훼손되어 시멘트로 보수된 상태이다.

21 이 나무가 용화수로 보이므로 미륵삼회설법의 장면으로 생각되고 있다. 문명대, 앞의 논문(2001), p.17.



도 2-1. 玄化寺 칠층석탑 1층 탑신 동면부조 佛會장면



도 2-2. 玄化寺 칠층석탑 1층 탑신 남면부조 佛會장면



도 2-3. 玄化寺 칠층석탑 1층 탑신 서면부조 佛會장면



도 2-4. 玄化寺 칠층석탑 1층 탑신 북면부조 佛會장면



도 3. 玄化寺 칠층석탑 1층 탑신 부조 유리건판 사진

본존상 좌우에는 원형의 광배를 가진 두 구의 제자상이 동그란 얼굴을 보이고, 그 좌우로는 보주형 광배를 가지고 보관 중앙에 네모진 장식이 달린 보관을 쓴 협시보살상이 목걸이와 팔찌를 차고 가슴에는 대각선 방향으로 條帛을 걸치고 있으며 하체에는 일정한 간격의 세로주름이 새겨진 치마[裙]를 입은 모습으로 서 있는데, 그 앞쪽으로는 소매가 넓은

大袖袍를 입고 합장한 남녀인물상이 보인다(도 2-2).²² 향우측은 여성으로, 향좌측은 남성으로 보이는 두 인물상은 미륵여래의 3회 설법회에 참석한 현종의 부모 안종과 효숙태후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존상을 중심으로 조각된 여섯 구 협시상들의 좌우와 앞뒤로는 사천왕상이 배치되어 있다.²³ 2층 탑신부터 7층까지는 각 층의 각 면에 본존불상과 좌우의 제자상 2구, 보살상 2구로 이루어진 5존상이 부조되어 있다(도 4). 이 상들은 고부조로 양감이 좋을 뿐 아니라 조각 면이 둥글어서 부드러운 느낌을 주며, 입체적인 느낌이 강한데, 비슷한 시기의 예천 開心寺址 석탑(1010) 부조(도 5)나 원주 居頓寺 원종국사현묘탑(1018~1025) 부조(도 6)에서 보이는 평면적인 조형성과는 차이를 보인다.

현화사 칠층석탑 부조가 갖는 의미는 11존으로 이루어진 불회의 장면이 탑신 면석에 표현되는 의장이 그 이전 석조물에서는 볼 수 없는 형식이라는 점이다. 이는 석탑조형의 새로운 형식이 고려에 전래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이와 비교될 수 있는 석탑이나 석조 經幢이 중국 五代 吳越에서 크게 유행하였고, 일찍이 광종 대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고려 승려들의 유학을 비롯한 오월과의 불교문화 교류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조형적 요소가 현화사 석탑에 나타나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²⁴ 초층탑신 네 면에 眼象과 삼존불상이 새겨진 飛霞寺 銅塔(939년)(도 7)을 비롯해서, 태평흥국 원년(976)명 「塔圖」와 「석가다보탑도」가 들어있는 「영산변상도」(985년경)와



도 4. 玄化寺 칠층석탑 2층 탑신 부조.



도 5. 開心寺址 석탑 기단 부조 팔부중상, 고려, 경북 예천



도 6. 居頓寺址 원종국사탑 부조, 고려 1025년경, 국립중앙박물관

22 문명대, 앞의 논문(2001), p.19.

23 향우측의 뒤쪽에는 왼손에 탑을 들고 오른손에 창을 든 북방 다문천이 서있고 이를 기준으로 향우측 앞쪽에 검을 들고 있는 동방지국천, 향좌측 앞쪽에는 조익형의 관식이 달린 투구를 쓰고 검을 들고 있는 남방 증장천, 그 뒤로 창을 든 서방 광목천(뒷줄 향좌)이 동남서북의 순서로 배치되었다.

24 최성은, 「羅末麗初 佛教彫刻의 對中關係에 대한 考察」, 『佛教美術』 11(1992), pp.105~130.



도 7-1. 飛霞寺銅塔, 五代 吳越 939년.



도 7-2. 飛霞寺銅塔, 부조 탁본.



도 8. 飛來峰 靑林洞석굴 盧舍那佛會 부조, 北宋 1022년, 浙江省 杭州

같은 판화들, 항주 비래봉 청림동석굴 노사나불회 부조(1022년) 등은 현화사석탑 부조와 비교될 수 있는 오월 · 북송초기의 자료라고 생각된다(도 8).²⁵

2) 현화사 석불좌상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유리건판 사진 한 장을 통해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현화사지 석불좌상은 광배를 잃은 것으로 보이고 앞부분이 마멸된 연화대좌 위에 앉아있다.²⁶ 球形에 가까운 둥근 두부와 작은 육계, 둥그란 얼굴, 둥글게 처리된 어깨, 양감 있는 佛身을 가진 불상으로 相好를 비롯해서 수인부분, 하체의 균열 등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훼손이 심한 상태이다(도 9).²⁷

25 『東土佛光』(杭州: 浙江古籍出版社, 2008), pp.159-160; 최성은, 앞의 논문(2008), pp.230-231.

26 상주 중모현에서 발견된 사리 가운데 50여립을 主佛의 몸속에 넣었다는 현화사비의 기록에서 볼 때, 이 석불은 불전[금당]의 주존불이 아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27 권강미, 앞의 논문(2014), pp.190-191.



도 9. 玄化寺址 석불좌상, 고려, 유리건판 사진



도 10. 道谷里 석불좌상, 나말여초, 경기도 여주

착의형식이나 수인 등 도상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양감이 있는 부드러운 곡면적인 조각적 표현이 앞에서 살펴본 현화사오층석탑에 부조된 본존불상과 유사하다.

이 불상은 마멸로 정확히 보이지는 않으나, 왼손을 아래로 내려놓고 오른손의 손가락을 펴서 왼손 바닥으로 뻗은 특이한 수인을 결하고 있는데, 유사한 수인이 여주 도곡리 석불좌상(도 10)을 비롯해서 남원 신계리 마애불좌상, 천안 삼태리 마애불입상, 경주 불국사 사리탑 부조 불좌상(도 11)과 같은 나말여초기에서 고려중기에 이르는 시기의 불상들에서도



도 11. 佛國寺 사리탑 부조 불좌상, 고려, 경북 경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고,²⁸ 이 가운데 고려 현종대의 제작으로 생각되는 불국사 사리탑

28 권강미, 앞의 논문(2014), pp.190-191; 허형욱, 「불국사 석조사리탑의 조성시기와 성격 고찰」, 『동원학술논문집』 13(2012), pp.70-73.



도 12. 神仙庵 석조보살입상, 나말여초, 강원도 원주



도 13. 梅芝里 석조보살입상, 나말여초, 강원도 원주

부조 불좌상을 미륵불로 추정하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²⁹

현화사지 석불좌상의 수인은 밀교수인 가운데 유사한 예가 발견되나 완전히 일치하는 예는 찾기 어렵다.³⁰ 善無畏 의 『胎藏圖像』에 보이는 오른손의 검지와 중지를 펴고 있는 미륵보살을 비롯한 여러 존상의 수인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도 가능하며,³¹ 이와 같은 도

상의 수인을 석불제작의 편의를 위해서 손을 몸에 붙여 손가락을 아래로 향하게 표현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현화사지 석탑의 부조와 석불좌상에서 보이는 부드럽고 조각면이 둥근 조형적 특징은 중국의 당말오대 조각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도 있겠는데, 나말여초기 남한강유역에 위치한 사찰들에 봉안되었던 여주 도곡리 석불좌상(도 10), 원주 봉산동 신선암 석조보살입상(도 12), 원주 매지리 석조보살입상(도 13) 등에서 유사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 조각면이 부드럽고 둥글며 온화한 분위기의 나말여초 석불상들은 고려중기에 이르러서 동그란 상호에 탄력감이 증가하고 조형적으로

29 『佛國寺古今創記』에는 불국사가 고려 현종 15년(1024)에 중창되었다는 기사가 보인다. 高裕燮, 『佛國寺의 舍利塔』, 『韓國美術史及美學論叢』(1963), pp.149-164(同著, 『高裕燮全集 1 한국탑파의 연구』(서울: 통문관, 1993), pp.346-347 재수록); 허형욱, 『통일신라 범천 제석천상 연구』(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pp.135-136. 불국사 석조사리탑이 현종대에 건립되었을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최성은, 『慈氏閣의 불상과 화엄십찰 청담사』, 『講座美術史』 32(2009), p.14 및 각주 6; 허형욱, 앞의 논문(2012), p.63 참조. 미륵불로 추정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허형욱, 앞의 논문(2012), pp.70-73 참조. 불국사가 고려중기에 범상종[瑜伽業] 사찰이었음은, 최연식, 『釋迦塔 발견 墨書紙片의 내용을 통해 본 高麗時代 佛國寺의 현황과 운영』, 『佛敎學報』 61(2012), pp.243-244 및 각주 참조.

30 李弘學編, 『佛敎諸尊手印』(成都: 巴蜀書社, 2003), pp.42-50.

31 『大正新修大藏經圖像部 2』(大藏經刊行會, 1983), 圖像 No.9, 上, 『胎藏圖像』은 일본의 구법승 圓珍(814-891)이 唐에서 직접 그려서 가져왔다는 『胎藏諸尊樣』의 세 번째 轉寫本으로 알려진 禪覺筆 『胎藏圖像』(1194, 奈良國立博物館)이다. 『胎藏圖像』의 말미에 쓰인 跋文에 의하면 善無畏(637-735)가 당에서 大日經을 한역할 때 태장계관계의 주요한 존상을 골라서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奈良國立博物館, 『奈良國立博物館の名寶 - 一世紀の軌跡 -』(1997), p.183 圖 158 및 p.313의 도판해설.

정리된 단계로 변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화사지 석불좌상 뿐 아니라 안성 봉업사지 석불입상(도 14), 서울 은평구 자씨각 석조보살입상(도 15) 등, 고려 중기에 제작된 것으로 생각되는 여러 상들에서 유사한 표현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서 수도 개경을 중심으로 하는 중부지역에서 유행했던 중앙지역 불상양식의 한 갈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도 14. 봉업寺址 석불입상, 고려, 경기도 안성



도 15. 慈氏閣 석조보살입상, 고려, 서울 진관동

2. 서울 삼천사

현종 12년(1021)에 현화사의 초대주지로 임명된 法鏡은 현종 즉위 이전 삼각산 三川寺에 주석했던 승려였다.³² 현종이 대량원군 시절에 머물던 神穴寺 가까이에 삼천사가 있었고, 천추태후로 인해 목숨을 위협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던 때에 법경의 명망을 익히 알게 되었을 것이며, 그런 인연으로 현화사의 첫번째 주지로 법경을 부르게 되었을 것이다.³³ 현화사주지를 맡게 된 법경은 법상종의 중심사찰로서 현화사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고려왕실의 최대 사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초조대장경 조판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³⁴ 법경은 덕종원년(1032)에 국사에 올랐는데, 나이가 들어서 현화사의 주지를 사직하고 삼천사로 하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³⁵

32 법경은 현종 11년(1020)에 王師가 되었고 덕종원년(1032)에 國師가 되었다. 『高麗史』 권 4, 세가 4 현종 11년 10월 己丑; 同書, 권 5, 세가 5, 덕종 원년 8월 戊午.

33 최병현, 앞의 논문(1981), p.247.

34 김혜완, 「三角山 三川寺址 大智國師碑의 복원과 法鏡의 생애」, 『북한산 삼천사지 탐비구역 발굴조사 약보고서』(2008), p.161 및 각주 153 참조.

35 법경은 현종 11년(1020)에 왕사가 되었고 덕종원년(1032)에 국사가 되었다. 『高麗史』 권 4, 세가 4 현종 11년 10월 己丑; 同書, 권 5, 세가 5, 덕종 원년 8월 戊午.

삼천사에 대한 문헌자료는 매우 소략하고,³⁶ 삼천사 대지국사비 역시 조선후기에 들어 심하게 파손되어 비문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³⁷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실시된 삼천사 탐비전지[大智庵址] 구역38의 발굴에서 수습된 다량의 비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 사실들이 새롭게 밝혀지게 되었다.³⁹ 우선, 탐비의 건립시기가 1046년에서 1050년 사이로 좁혀지고,⁴⁰ 『해동금석원』에 필사된 비음기의 “麗國大茲”는 “高麗國 大慈恩...”일 가능성이 커졌으며, 비양기의 제목도 “高麗國 大慈恩 三角山 三川寺...”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⁴¹ 삼천사가 법상종 사찰이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지국사 법경이 승랍 85세(세속 92)까지 살았다는 것과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대지국사비의 찬자 李齡幹의 이름이 확인되었으며 書者가 崔弘儉이라는 것도 밝혀졌다.

특히, 비문에는 신라시대 유식학 승려였던 太賢과 그의 스승인 道證의 이름과 함께 『유가백록문』[유가사지론]과 태현이 찬술한 『성유식론학기』의 주석서인 『대승심로장기』[광석 본모송석]에 대한 언급이 있어⁴² 고려중기 법상종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얻게

36 삼천사에 대해서는 고려 현종 18년(1027) 삼천사승려가 釀酒하여 처벌받은 기록(『高麗史』 권 4, 현종 18년 계미, “楊州奏 藏義三川靑淵等寺僧 犯禁釀酒 共米三百六十餘石 請依律斷罪 從之”) 뿐이고, 大智國師 法鏡에 대해서도 현화사비와 고려사에 단편적인 기록이 있을 뿐이다.

37 대지국사비는 조선후기에 朗善君 李侯(1637-1693)가 편찬한 『大東金石書』에 비의 단편이 소개되었으며, 劉喜海(1794-1852)가 편집한 『海東金石苑』에는 비양 파편이 8개, 음기 파편이 8개가 필사되었다. 1965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조사하여 碑陽片 49개 399字와 碑陰片 25개 115字가 『美術資料』에 소개되었으며 이 때 수습한 비편 중 비양편 16개, 비음편 8개가 『韓國金石遺文』에 실렸고, 『한국금석전문』(허흥식, 1984)이나 『역대고승비문』(이지관, 1995)에도 실려 있다. 朝鮮總督府, 『京畿道高陽郡北漢山遺蹟 調査報告書』, 『大正五年度 古蹟調査報告』(1917), p.39; 최순우, 『三角山 三川寺 大智國師碑』, 『美術資料』 10(1965), pp.15-18.

38 삼천사지는 本寺域과 대지국사의 탐비와 부도, 부도전이 있던 탐비전지(대지암지), 여기서 서남쪽으로 100여m 떨어져 있는 부속 건물군으로 나뉜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불교문화재 발굴조사단, 『北漢山の 佛教遺蹟 - 북한산 불교유적 지표조사보고서』(서울: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1999), pp.102-113; 서울역사박물관, 『북한산 삼천사지 발굴조사보고서』[발굴조사편](서울: 서울역사박물관, 2011), p.276 참조.

39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진행한 발굴을 통해 255점의 비편이 수습되었고 630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역사박물관, 앞의 보고서(2011), p.144.

40 “重熙十”이라는 비편이 나왔으므로 1041년에서 1050년 사이일 것으로 보이는데, 탐비가 문종대에 세워졌다는 『대동금석목』의 기록을 고려하면, 1046년에서 1050년 사이로 좁혀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탐비의 건립연대와 조형적 특징에 대해서는, 엄기표, 『삼천사 대지국사탐비의 양식과 미술사적 의의』, 『북한산 삼천사지 발굴조사 보고서』(2011), pp.424-443 참조.

41 劉喜海(1794-1852)가 편집한 『海東金石苑』에는 비양 파편이 8개, 음기 파편이 8개 필사되어 있었는데, 음기파편의 필사 가운데 “麗國大茲”가 있었다. 김혜완, 『삼각산 삼천사지 대지국사비의 복원과 법경의 생애』, 『북한산 삼천사지 탐비구역 발굴조사 약보고서』(2008), p.135, p.145, p.155.

42 서울역사박물관, 앞의 보고서(2011), pp.149-151.

되었다.⁴³ 발굴된 유물 가운데는 다양한 종류의 고려와 조선시대 도자기, 오대 월주요 청자완을 비롯한 중국제 수입자기, 토기, 기와, 금속공예품, 석제품들이 있었고,⁴⁴ 熙宗(1204-1211년 재위)의 넷째 따님인 嘉順宮主 銘의 금니목가구편이 발견되어 고려후기에도 삼천사에 왕실의 후원이 계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⁴⁵

1) 출토된 불상관련 유물



도 16. 삼천사 부속건물군 제 1건물지 발굴조사 후 전경(항공사진)

부속건물군의 발굴조사에서 드러난 제 1건물지(도 16)의 중앙에는 장대석을 ㅁ자 모양으로 배치하여 만든 장방형의 불단(190cm x 170cm)이 조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이 건물은 불전으로 추정 되었다.⁴⁶ 불단 장대석의 폭에 비해 그 위에 놓여 있던 대좌의 폭이 좁았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큰 규모의 불상이 봉안되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불단의 내부토양 속에서 작은 석조보살두가 출토되었고 같은 건물지 북쪽 기단부 아래에서 금

43 신라의 법상종은 미륵과 지장을 모시고 실천수행을 강조하는 진표계 법상종과 미륵과 아미타를 모시고 교학에 중점을 둔 태현계 법상종으로 나뉘어 진다고 이해되고 있다. 문명대, 『新羅 法相宗(瑜伽宗)의 成立問題와 그 美術(下)-甘山寺 彌勒菩薩像 및 阿彌陀佛像과 그 銘文을 中心으로』, 『歷史學報』 63(1974), pp.130-162(同著, 『한국의 불상조각 2 - 원음과 고전미』(서울: 예경, 2003) pp.71-110 재수록).

44 삼천사지 대지암지에서 출토된 도자기에 대해서는 장남원, 「삼천사지 출토 도자의 도자사적 의의」, 『북한산 삼천사지 발굴조사보고서』(2011), pp.410-423; 同著, 「三千寺址 大智庵 출토 고려도자 연구」, 『중앙사론』 36(2012), pp.27-61 참조.

45 명문은 금니로 쓰여져 있는데, “嘉順宮主王氏 我嘉耦新安公 〇〇世時 〇〇...”로 판독된다. 서울역사박물관, 앞의 보고서(2011), p.379. 가순공주는 고려 熙宗(1204-1211년 재위)의 4녀로 현종의 넷째 아들인 平壤公 王基의 7世孫인 新安公 王佺(?-1261)과 혼인했던 인물이다. 高宗의 왕비인 安惠王后의 친동생이고 원종의 제 2비인 慶昌宮主의 어머니였다(『高麗史』 권 91, 열전4 공주). 삼천사지출토 목조가구와 유사한 木家具片이 강화도의 元德太后 坤陵(1239년경)에서도 발견되었다. 장남원, 앞의 논문(2012), p.46.

46 제 1 건물지는 북쪽으로 10-20도 기울어진 서향으로 정면 3칸 측면 3칸이며 내부의 여칸에는 초석이 없고 정면의 주칸은 2.2m, 측면의 주칸은 협칸이 1m, 여칸이 2.1m이다. 불단의 조성시기는 고려후기보다 이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서울역사박물관, 앞의 보고서(2011), pp.277-281.



도 17-1. 석조보살두 정면, 고려, 높이 3.7cm, 三川寺址출토, 서울역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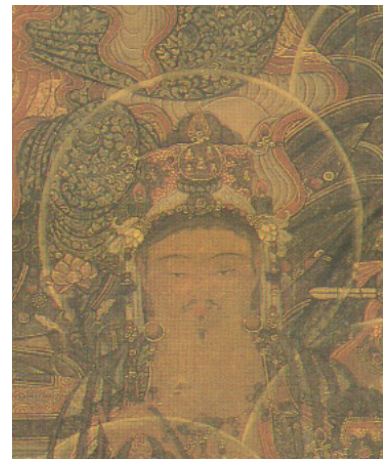
도 17-2. 석조보살두 옆면



도 17-3. 석조보살두 뒷면

동제의 불상 손가락편, 대의(또는 천의) 옷주름편, 청동花形장식편 등이 발견되었다.⁴⁷

석조보살두(도 17)는 잔존크기 3.7cm로 윗부분이 파손된 통형의 寶冠에 化佛이 3구 새겨져 있고 입술과 보관에 채색의 흔적도 보이는데, 훼손된 상으로 불단을 놓을 때 기단부에 떨어져 폐기된 것으로 생각된다. 파손된 상태인 보관의 높이가 원래는 지금보다 높았을 것으로 보이며 화불이 다섯 구였을 가능성도 있어, 그렇다면 일본 松尾寺 소장 고려 후기 「아미타구존도」의 미륵보살(도 18)에서 보이는 5佛寶冠[五智寶冠]과의 연관성이 엿보인다. 한편, 금동제 불상손가락편(도 19)은 한마디가 조금 넘는 파편으로 손톱이 새겨져 있으며 잔존 길이가 4.1cm 정도인 것으로 보아서 불전에는 등신대보다 크지 않은 금동상이 봉안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 18. 아미타구존도(미륵보살도 부분), 고려 1320년, 松尾寺소장



도 19. 금동제 손가락편, 고려, 4.1cm, 三川寺址출토, 서울역사박물관

2) 삼천사 마애불입상

삼천사의 사역은 발굴이 이루어진 대지암지(탑비전지)와 본사역 외에도 지금의 조계종 삼천사가 있는 일대까지

47 보살두는 불단 중심 지표 밑 10cm 지점에서 출토되었다. 금동제 불상손가락편은 폭 1.4cm, 두께 1.3cm, 손톱길이 1.3cm 의 크기이다. 서울역사박물관, 앞의 보고서(2011), p.281, pp.372-373.



도 20. 三川寺址 入口 마애불입상, 고려, 서울 진관동

삼천리골의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삼천사 입구에 고려시대 마애불입상도 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찍이 1967년에 이 일대에서 고려시대 범종과 정병 등이 발견되기도 하였고⁴⁸ 이곳에서 탐비구역으로 올라가는 산길에 기와와 도기의 편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점을 통해서도 추측이 가능하다.⁴⁹ 따라서 오늘날까지 전하는 마애불입상(도 20)은 삼천사지의 영역 안에 있던 불상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⁵⁰

넓은 병풍석에 얹게 부조된 높이 302cm의 마애불입상은 좌우보처가

없는 독존불로 모셔졌는데, 좌우에 목조가구를 이었던 방형의 구멍이 뚫려있어 원래는 마애불 앞에 불전이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마애불의 얼굴은 입가에 미소를 띤 자비롭고 온화한 相好로 매우 사실적이다. 마치 회화를 연상하게 하는 저부조의 조각기법이나 광배를 두 줄의 선으로 간략하게 표현한 것은 하남시 교산동 마애약사불좌상(977년 중수)과 같은 고려초기 조각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으로서 당말오대 조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사실적이고 인간적인 얼굴표현 역시 당말오대 불교조각에서 원숙한 단계로 발전했던 것으로서 나말여초기 불상에서도 나타나며 고려중기 불교조각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이해된다. 내의를 리본모양의 매듭으로 묶고 길게 그 끈을 늘어뜨린 표현을 볼 때 이 마애불상의 範本이 회화일 가능성도 있으며, 이와 유사한 표현이 傳경주출토 금동여래입상(동경국립박물관)(도 21)에서도 보이므로 신라하대

48 1967년 11월 삼천사골의 개인주택 확장공사 중에 청동범종(높이 27.1cm)과 청동정병(높이 41.5cm), 청동臺付鉢(높이 10.5cm, 口徑 14.5cm 臺高 2.3cm)이 출토된 바 있다. 鄭良謨, 「三川寺골發見 靑銅梵鍾 及 一括遺物」, 『考古美術』 90(1968), pp.364-365 참조.

49 은평구 진관동을 비롯해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내의 북한산 일대가 고려시대 삼천사의 사역일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서울역사박물관, 『삼천사지 발굴에서 전시까지』(서울: 서울역사박물관, 2008), p.11.

50 마애불입상에 대한 소개와 연구는 정명호, 「三川寺址 入口 磨崖如來像」, 『考古美術』 10(1961), pp.108-109; 최성은, 「삼천사지 마애불입상」, 『석불 돌에 새긴 정토의 꿈』(서울: 한길아트, 2003), p.279; 정지희, 「北漢山 西部지역 고려불상의 연구」, 『講座美術史』 26, no.1(2006), pp.205-210 참조.



도 21. 금동여래입상, 통일신라, 傳 경주출토, 東京國立博物館



도 22. 금동여래입상, 나말여초, 강릉 한송사지출토, 國立春川博物館

9~10세기 금동불상을 모델로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⁵¹ 마애불상의 상호와 착의형식 등에서는 강릉 한송사지 출토 금동불입상(도 22)과도 상당히 유사하다. 대부분의 여래입상에서 한 손을 올려 시무외인이나 설법인을 결하는 것과 달리, 삼천사 마애불상에서는 오른손을 아래로 내려 옷자락을 쥔 듯하고 왼손은 배에 대고 있는 수인으로 표현되어 있다. 아마도 이것은 얇게 부조된 불상이므로 조각의 편리성 때문으로 생각되는데,⁵² 손의 좌우가 바뀌긴 하였으나 뒤에서 살펴볼

51 이 금동여래입상의 뒷면을 보면 주조구멍이 머리부터 몸체까지 길게 뚫려있어 신라시대 9~10세기의 금동불로 판단된다.

52 한 예로 안성 봉업사지 석불입상(현재 안성 칠장사 소재)의 경우에도 왼손은 내려서 옷자락을 쥐고 오른손은 가슴에 붙이고 있는 모습이다.

원주 법천사지에서 출토한 석조보살입상에서도 유사한 손 모습이 보이는 것이 흥미롭다.⁵³

3. 원주 법천사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일대에 펼쳐져 있는 법천사는 고려시대에 원주지역에서 크게 융성하였던 법상종 사찰이다. 이미 신라시대 9세기에 官壇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나말여초 불교계에서의 위상을 알 수 있는데,⁵⁴ 이후 고려중기에 법상종이 크게 융성하면서 寺勢가 더욱 커졌던 것으로 생각된다.⁵⁵ 원주 출신인 지광국사 海麟(984-1070)은 법천사에서 寬雄으로부터 법상교학을 배웠고, 스승을 따라 개경 海安寺로 옮겨 俊光 방장 문하에서 교학을 배웠다. 水多寺, 海安寺 주지를 거쳐, 문종 8년(1054)년부터 현화사 3대 주지를 맡아 중앙 불교계에서 활약하다가⁵⁶ 입적하기 3년 전(1067) 법천사로 하산하였다. 법천사에 전해오는 해린의 탑과 비는 그가 입적하고 15년이 지나서 완공된 것으로 고려시대 석조미술의 극치라고 할 만한 뛰어난 조형성과 정치함을 보여주고 있어 탑과 비의 건립에 해린의 제자인 현화사 주지 혜덕왕사 韶顯(1038-1097)을 비롯한

53 마애불입상이 있는 영역은 산 위에 있는 삼천사의 본사역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다. 아직 본사역의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아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익산 미륵사지의 경우처럼 산 정상에는 미륵보살의 도솔천을 표현하고, 산 아래의 평지는 하생하여 성불한 미륵여래의 영역을 나타냈을 개연성도 있으므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삼천사 마애불입상을 미륵불로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삼천사가 위치한 삼각산에는 신현사 외에도 香林寺가 법상종 사찰로 여겨지고, '청담사'명 기와가 발견되어 화엄십찰 청담사로 생각되고 있는 은평구 자씨각 일대에 전해오는 석조아미타불좌상과 미륵보살입상도 고려초·중기의 조각으로 추정되고 있어 삼각산 일대 법상종의 융성을 엿볼 수 있다. 최성은, 「慈氏閣의 불상과 화엄십찰 靑潭寺」, 『講座美術史』 32(2009), pp.23~49 참조.

54 법천사는 작주·북원경 일대에 유일한 관단사찰이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법천사가 처음 문헌에 나타나는 것은 중원부 출신의 眞觀禪師 釋超(912-964)가 928년 법천사에서 賢睿律師를 戒師로 하여 具足戒를 받았다는 기록이다. 「지곡사 진관선사 오공탑비」, 김혜원 역, 『譯註 羅末麗初金石文』 下(서울: 혜안, 1996), p.444; 韓其汶, 「高麗前期 受戒와 戒壇」,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1998), p.367; 김혜원, 「신라시대 고려전기 원주불교의 전개와 신앙」, 『史林』 21(2004), p.21 참조.

55 법천사지의 발굴은 1938년에 小川敬吉에 의해 처음 이루어졌고 해방 후에는 1965년에 국립박물관에 의해 塔碑殿址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가 실시되었으며 본격적인 발굴은 강원고고문화재연구소와 강원고고문화연구원에 의해 다년간 실시되었다. 법천사지에 대한 대표적인 자료는 정영호, 「원주의 사적: 흥법·법천·거둔」, 『考古美術』 1 no.1(1960), pp.16-18; 考古美術同人會, 「高麗法泉寺智光國師塔碑殿址調査概要」, 『考古美術資料』 11(1968); 강원문화재연구소, 「原州 法泉寺址 2차 發掘調査」(2003); 강원문화재연구소, 「原州 法泉寺址 4차 發掘調査」(2004); 지현병, 「원주 법천사지 발굴조사 현황과 과제」, 『耘谷學會研究論叢』 2(耘谷學會, 2006); 江原文化財研究所·原州市, 「原州 法泉寺Ⅰ- 제 1區域 發掘調査 報告書」(2009); 원주시·江原考古文化研究院, 「原州 法泉寺Ⅱ - Ⅲ구역 발굴조사 보고서」(2014); 원주시·江原考古文化研究院, 「原州 法泉寺Ⅲ - Ⅱ구역 발굴조사 보고서」(2017) 참조.

56 현화사 주지를 맡는 동안 사찰의 보수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게 하여 불화를 그리고 범종을 주조하는 등, 일체의 法具를 마련하여 새로워진 사찰의 모습은 兜率天宮을 옮겨놓은 것 같았으며 경전 간행도 원만하게 성취하였다고 한다. 이지만, 「원주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비문」, 앞의 책(1995), pp.347-395 및 p.381.

왕실과 문벌귀족 가문의 후원이 대단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⁵⁷

정현, 해린, 소현 등, 법천사와 관련이 있는 법상종 승려들은 중앙 불교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현화사의 주지를 역임했었는데, 법천사에서는 개경의 현화사에서처럼 정기적으로 아미타회가 설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천사지 출토로 알려진 청동향완, 청동懸爐, 청동光明臺[燭臺], 청동燐, 청동飯子[金口] 가운데는 “무자년에 법천사 미타상 앞의 22개의 광명대를 만들어 봉안했다”거나 “무자년에 법천사 彌陀會의 현로 3점을 만들었다”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⁵⁸ 법천사에서 ‘미타회’가 설행되었고, 아미타불상 혹은 아미타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무자년에 제작된 총 45개의 광명대 가운데 6개는 큰 것이었다고 적혀있는데,⁵⁹ 대형 광명대는 아미타회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⁶⁰ 또한 새로운 佛具를 다량 제작한 기록은 법천사 아미타회의 성대한 규모를 짐작케 한다.

현재 법천사지에는 지광국사 해린의 현묘탑비가 탑비전지에 세워져 있으며, 해린의 부도인 지광국사현묘탑은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가 1967년 경복궁에 이전되었고 최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해체보수 중에 있다. 법천사지 발굴조사를 통해서 계획적으로 구획된 공간에 조성된 다원식 가람배치가 확인되었고, 금당과 강당 및 2개소의 탑지가 있는 중심사역이 드러났으며, 금동

57 김남윤, 「高麗中期 佛教와 法相宗」, 『韓國史論』 28(1992), pp.137-138 참조.

58 戊子銘 法泉寺 靑銅光明臺는 2개인데, 그 명문은 다음과 같다. ① “戊子二月日 法泉寺彌陀殿光明臺 二十二內大三棟梁信懷惠堅則岡(?)景申里文等, 次知造納 都重八十四斤三兩.” ② “戊子二月日 法泉寺彌陀前 二十三內大三信懷等五人 次知造納 都重七十二斤八兩.” 懸爐(동국대학교 박물관)의 명문은 “戊子二月日 法泉寺彌陀會懸爐 三都卜七斤七兩 信懷等五人知造納.” 戊子銘 法泉寺 燐口銘, “戊子三月日 法泉寺彌陀前燐口 三入卜 一斤十二兩 信懷等五人造成.” 戊子銘 청동향완 명문은 “戊子二月日 法泉寺彌陀前香垆 三都卜信十一斤 懷等五人, 次知造納(?)” 황수영 편, 『韓國金石遺文』(임지사, 1976), pp.415-417 및 pp.359-360; 허홍식 편, 『韓國金石全文』 中世下(서울: 아세아문화사, 1984), pp.1266-1267; 이용진, 「法泉寺址 출토 戊子銘 佛教工藝品 연구」, 『佛教美術』 23(2012), pp.27-57, pp.28-30 참조; 최성은, 「원주 법천사지의 고려시대 불교조각」, 『美術史學』 29(2015), pp.93-94 참조.

59 법천사 아미타불·관음·대세지보살상으로 구성된 아미타삼존불상의 각 상 앞에 향로, 현로, 번이 각각 1개씩 놓이고 좌우에 대형의 광명대가 놓였을 것이며 명문의 戊子年은 1168년 무렵으로 추정되고 있다(이용진, 앞의 논문, 2012, pp.45-47). 이보다 4년 이른 1164년에 毅宗이 낙산사동에 있던 인지재를 방문할 때 당시 법천사의 주지였던 覺倪가 왕에게 주육을 대접했고 2년 뒤에 자신이 창건한 성수원에서 왕을 모시고 연회를 열었으며 1167년에는 장흥원 모임에도 참가했던 것을 보면, 법천사는 여전히 중앙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高麗史』 권 18, 의종 18년 2월 병오; 同 20년 4월 갑신; 同 21년 3월 기미; 이인재, 「법천사와 법천사 연구의 새로운 진전을 위하여」, 『耘谷學會研究論叢』 2(2006), p.104 참조.

60 등불과 촛불을 받치는 광명대는 받침에 발이 세 개 달려있고 간주는 죽절형이며 원반형의 등좌 위에는 직접 등불을 올려놓을 수도 있고 가운데 작은 사발에 촛불을 켤 수 있게 되어 있다. 『고려도경』에는 고려의 광명대를 설명하면서, 높이가 4척 5촌, 그 위에 올려진 쟁반의 폭이 1척 5촌이라고 크기를 명시하고 있다. 서국 지음, 조동원 [외] 옮김, 『고려도경: 중국 송나라 사신의 눈에 비친 고려 풍경』(서울: 황소자리, 2005), pp.358-359; 이용진, 앞의 논문(2012), pp.31-32 참조.

불입상과 보살상편, 도자기와 토기, 다량의 와전류, 금속제품, 석제품 등이 출토되었다.⁶¹ 불교 조각들은 대부분 등신대보다 작은 석조상이나 소형의 금속상이며 완전하게 남아있는 상이 거의 없는데, 여기서는 그 일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다.⁶²

1) 금동불입상과 보살상

법천사지 8차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소형 금동불입상은(도 23) 通鑄式 으로 주조되었으며 도금의 흔적이 군데군데 남아있다.⁶³ 육계부분이 크고 우뚝하게 높으며 얼굴은 방형에 가까운 넓적한 형태이고 반개한 눈꼬리가 길게 새겨져 있다. 몸에 걸친 대의는 우견편단식으로 표현되었고 왼손의 끝부분이 손상되었는데 시무외인과 여원인의 通印을 結했을 것으로 보인다. 오른쪽 옆구리부분에 구멍이 뚫린 것은 삼곡자세와 같이 무게 중심이 한쪽에 치우쳐져 서있는 모습을 나타내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과장되게 크고 우뚝한 육계는 원주 매지리 석조보살입상(도 13), 금천 영파리 석조보살입상, 은평구 자씨각 석조보살입상(도 15)과 같은 나말여초에서 고려중기에 걸쳐 원주 남한강 유역과 중부지역에 전해오는 상들에서도 발견된다. 이 상들은 여래의 대의식 착의형식을 하고 있는 미륵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법천사지 금동불입상도 같은 도상적 범주 안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도 23. 금동불입상, 고려, 8.85cm, 法泉寺址 출토



도 24-1. 금동보살입상 정면, 고려, 法泉寺址 출토



도 24-2. 금동보살입상 뒷면

61 법천사는 나말여초기에 초축되어 고려전기, 고려중기에서 후기사이, 고려후기에서 조선초기 사이에 축조된 유구가 확인되어 최소 4차례 이상 중창된 것으로 보인다. 원주시·江原考古文化研究院, 앞의 보고서(2017), pp.23-26, pp.551-552.

62 최성은, 앞의 논문(2015), pp.74-90.

63 금동불입상은 전체높이 8.85cm, 상 높이 5.59cm로 법천사 Ⅱ구역 건물지군의 남단에 위치한 35호 건물지 고려전기 유구의 적심내부에서 출토되었다. 지현병, 앞의 논문(2006), pp.137-139; 최성은, 앞의 논문(2013), pp.5-20; 원주시·江原考古文化研究, 앞의 보고서(2017), p.488, p.490 및 도면 248; 江原文化財研究所·原州市, 앞의 보고서(2009), p.418 및 p.420 도면 267.

한편, 지표에서 수습된 금동보살입상(도 24)은 머리와 양 팔, 대퇴부 아래 부분을 잃은 상으로 표면에 전체적으로 녹이 슬고 부식이 심한 상태인데 청동제로 알려져 있으나 원래는 도금한 금동보살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⁶⁴ 양 어깨에는 寶髮이 흘러내리고, 목에는 작은 구슬들이 달린 둥근 목걸이를 걸고, 팔에는 2줄로 양각된 팔찌를 차고 있으며, 보관의 양쪽에서 아래로 길게 늘어졌을 장식 띠가 양쪽 어깨에서 팔 아래로 수직 방향으로 양각되어 있다. 허리에는 斜線 문양이 음각된 허리띠를 매어 치마를 고정하였고, 그 밑에는 치마 위에 덧입는 요포형태의 옷자락이 수직 주름을 이루며 내려오며, 그 아래에 옷주름이 세로 선으로 음각된 치마[裙]가 표현되어 있다. 팔찌가 남아있는 오른 팔은 몸에 부착되었던 흔적이 없는데, 아마도 손을 앞쪽으로 올려 수인을 결했을 것으로 보이고, 왼 팔은 아래로 내려 지물을 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보살상의 하체 왼쪽에 붙어있는 덩어리는 지물이 녹은 것으로 보인다. 뒷면에는 주조구멍이 동그랗게 뚫려 있고, 요포와 치마의 옷주름이 약간 비스듬하게 새겨진 모양으로 보아 삼존불상의 좌협시보살상으로 생각된다.

2) 석불좌상과 석조보살입상

원주역사박물관에 옮겨져 있는 석불좌상(도 25)은 머리와 오른팔의 일부를 잃었으나 편단우견식으로 대의를 걸치고 오른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당당한 체구의 상이다. 가슴 부분은 융기되어 양감이 나타나며 두꺼운 대의에는 옷주름이 깊게 새겨졌고 왼쪽 팔을 덮은 가사에는 띠주름이 새겨져 있는데, 결가부좌한 다리의 중앙 아래에 옷주름이 동그랗게 꽃잎처럼 새겨진 것은 이 상에서 보이는 특이한 장식적 표현이다. 다소 과장된 양감에서 오는 세속적인 느낌, 두꺼운 대의에 새겨진 띠모양의 옷주름, 뒷면의 밋밋한 처리 등에서 강릉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 하남시 자혜사지 석불좌상 등, 고려초기로 편년되는 석조상들과 유사하며 제작 시기는 고려초·중기로 생각된다.

법천천에서 발견된 잔존높이



도 25. 석불좌상, 고려, 높이 56cm, 法泉寺址 수습, 원주역사박물관



도 26-1. 석불두, 고려, 法泉寺址 출토



도 26-2. 석불두 탁본

64 잔존높이 11.2cm, 강원문화재연구소·원주시, 앞의 보고서(2009), p.418, p.420 도면 267, p.604 사진 167.



도 27. 철조약사불좌상의 얼굴부분, 나말여초, 국립춘천박물관



도 28. 철조아미타불좌상의 얼굴부분,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27cm의 석불두(도 26)는 앞의 석불 좌상의 머리는 아니며 육계가 없어지고 뒷면도 훼손되었으나 희미하게 남아 있는 나발을 통해서 불두로 확인된 상이다.⁶⁵ 얼굴의 표정은 부드럽고 인간적이며 입가에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으며 통통한 뺨과 선명한 인중, 턱의 가운데가 안으로 속 들어간 표현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묘사한 듯한데,

원주출토의 철조 약사불좌상(도 27)이나 아미 타불좌상(도 28)의 상호에서 보이는 사실적인 표현이 석불에 옮겨진 듯하다. 이와 같이 얼굴이나 신체의 표면이 곡면적으로 부드럽고 둥근 조형적 표현은 강릉, 원주, 여주, 이천, 평택, 안성, 서울 등에서 출토된 나말여초에서 고려전기에 이르는 여러 불상에서 발견된다.

법천사지 3구역을 발굴하기 위해 민가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2구의 석조입상(도 29, 30)은 두부와 상체를 잃어 불상인지 보살상인지 구별하기 어렵다.⁶⁶ 한 구는 왼손을 아래로 내려서 옷자락을 쥐고 오른손은 복부에 대고 있는 자세이고, 다른 한 구는 옷에 덮힌 두 다리의 사이에 옷자락이 늘어지고 다리 좌우로 옷자락이 흘러내리고 있다. 발등 위까지 옷자락이 늘어져 있고



도 29-1. 석조보살입상, 고려, 法泉寺址 출토



도 29-2. 석조보살입상 탁본



도 30. 석조보살입상, 고려, 法泉寺址 출토

65 원주시·江原考古文化研究院, 앞의 보고서(2014), p.268, p.270 참조.

66 각각 잔존높이 76.4cm, 잔존높이 57.8cm, 원주시·江原考古文化研究院, 앞의 보고서(2014), pp.266-268.



도 31. 開泰寺 석조삼존불입상의 좌협시보살입상,
고려 940년경, 충남 연산

각각 무릎 아래에서 U자형의 주름을 이루고 있으며, 일반적인 여래입상에서처럼 치마[裙] 위에 덧입은 대의(大衣) 자락이 표현되지 않아서 두 구 모두 보살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이와 유사한 표현은 연산 개태사 석조삼존불입상(940년경)의 좌협시보살입상(도 30)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앞의 상에서 보이는 다리사이에 길게 내려오는 옷주름과 양 대퇴부 아래 무릎부근에서 긴 U자형 옷주름이 새겨지고 왼손을 아래로 내려 옷자락을 권 모습은 같은 원주지역의 봉산동 신선암 입구 석조보살입상(도 12)과 매지리 석조보살입상(도 13)과도 상당히 유사하다.⁶⁷

3) 석조공양보살좌상

법천사지 3구역의 도로 아래에서 출토된 공양좌상은 두부를 잃은 상태였으나 무릎을 꺾어 공양을 올리는 자세로 앉은 공양상인 것이 분명했는데,⁶⁸ 대좌 부재들과 맞춰지고 법천사지 탐비전지에서 원주역사박물관에 옮겨져 있던 보살두를 올려놓아 제 모습을 찾게 되었다(도 32).⁶⁹ 목과 양팔, 왼쪽 다리부분 등을 잃었으나, 보살상의 얼굴은 통통하고 조각면이 둥글고 부드러운 상호이며 상체에는 가슴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條帛을 걸쳤다. 무릎을 꿇은 오른쪽 다리는 풍만하며 바닥(대좌축)을 딛고 있는 왼발은 사실적으로 조각되었다. 복부를 덮은 치마주름은 등간격의 세로주름을 이루며 내려오는데, 접혀 있는 오른 다리 사이로 치마자락이 늘어져 있다. 등에는 앞에서 넘긴 조백이 표현되었는데 정면에 비해서 조각이 평면적이다.

67 이 상들은 대의형태의 착의형식과 과장되게 높게 솟은 머리 표현에서 나말여초기의 미륵존상으로 추정된 바 있어 두 구의 법천사지 보살상 가운데 미륵보살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崔聖銀, 「나말여초 중부지역 석불조각에 대한 고찰 - 궁예 태봉(901-918)지역 미술에 대한 시고 -」, 『역사와 현실』 44(2002), pp.29-64; 同, 「고려초기 석조반가좌보살상에 대한 소고」, 『항산 안휘준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 2』(사회평론, 2009), pp.104-125(同,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서울: 일조각, 2013), pp.118-148 수정 재수록); 同, 앞의 논문(2009), pp.23-49 참조.

68 강원문화재연구소, 『原州 法泉寺址 3차 發掘調査』(2003), p.41; 원주시·江原考古文化研究院, 앞의 보고서(2014), p.266, p.269.

69 탑 앞에 놓인 공양보살상의 존명에 대해서는 『法華經』, 『藥王菩薩本事品』에 나오는 약왕보살이라는 견해를 비롯해서 여러 설이 제기되어오고 있다. 약왕보살은 전생에 日月淨明德佛의 세계에서 수행하던 一切衆生喜見菩薩이었는데, 여래와 『법화경』에 공양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태워 1만 2,000년 동안 공양하였으며, 다시 일월정명덕불의 세계에 태어나 열반에 든 여래의 사리를 거두어 8만 4천개의 탑을 세우고 그 사리에 공양하기 위해 8만 4천개의 탑 앞에서 팔을 태워 7만 2천년 동안 공양하였다고 한다. 『한글대장경』 권 41 『법화경』의 제6권 「약왕보살본사품」, pp.341-350.

탑 앞에 놓이는 공양보살상은 고려초·중기에 유행하여, 연산 개태사 석조공양보살좌상, 강릉 신복사지 석조공양보살좌상(도 33), 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과 같은 예가 전하고 있다.⁷⁰ 법천사지 석조공양보살상의 육각연화대좌는 중대석을 잃었으나 하대 받침의 각 면에 커다란 眼象이 새겨져 있고 그 중앙에는 꽃머리장식이 조각되어 있다. 이것은 상의 편년에 중요한 요소인데, 꽃머리장식이 석탑과 석등의 기단이나 불상의 대좌 받침에 표현되는 것이 고려중기부터 유행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 공양보살상의 조성시기는 고려중기 11세기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⁷¹



도 32. 석조공양보살좌상, 고려, 法泉寺址 출토



도 33. 神福寺址 석조공양보살좌상, 고려 강원도 강릉

4) 석등 부재



도 34. 석등 화사석편 부조 공양보살좌상
고려, 法泉寺址 출토

법천사지 탑비전지의 석축에서는 석등의 화사석을 받쳤을 사자상의 몸체(둔부) 부분을 비롯해서 화사석의 일부였던 雲中 비천상 부조, 공양보살상 부조 등이 출토되었다.⁷² 그 가운데는 주목되는 것은 왼쪽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으로 무언가를 받쳐 들고 공양을 올리는 자세의 공양보살상이다(도 34). 원통형 보관을 쓰고 머리 뒤에는 원형의 광배가 얇게 부조되어 있으며, 원통형 보관 위로는 폭이

70 최성은, 「溟洲地方의 高麗時代 石造菩薩像에 대한 研究」, 『佛敎美術』 5(1980), pp.56-78(同,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 pp.149-179 수정 재수록); 박경식, 「江陵市の 佛敎遺蹟」, 『江陵의 歷史와 文化遺蹟』(강릉대학교박물관, 1995); 池賢柄 외, 「神福寺址 試掘調査 報告」, 『강릉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강릉대학교박물관, 1996); 강원문화재연구소, 『강릉 신복사지』(2007).

71 법천사지 공양보살좌상의 제작시기에 대해서는 해린이 하산한 1067년경 법천사의 중심사역이 중창되던 때로 보는 견해가 있다. 정성권, 「고려시대 塔前 石造供養菩薩像의 등장과 전개」, 『佛敎美術史學』 21(2016), pp.54-5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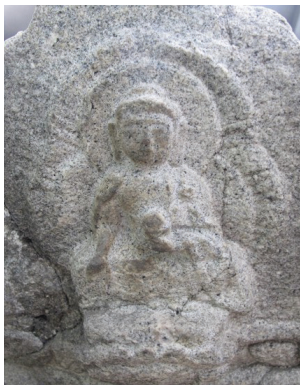
72 사자상의 둔부는 석등의 화사석을 받치고 서있는 사자의 몸체부분으로 꼬리 끝과 둔부 좌우에 등글게 말리는 털갈기의 표현은 사실적인데, 이 사자상을 통해서 법천사에도 법주사 쌍사자석등, 중흥산성 쌍사자석등, 영암사지 쌍사자석등과 같은 쌍사자석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원주시·江原文化財研究所, 앞의 보고서(2009), pp.386-388 참조.

넓은 寶蓋 같은 것이 표현되었는데, 그 앞뒤로 술 같은 것이 늘어져 있다.⁷³ 이 석등화사석 부재들은 화창구가 없는 면의 일부라고 생각되며 모두 같은 석등의 부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지광국사 해린(海麟, 984~1067)이 입적하고 그의 탑비전이 건립될 때 세워진 석등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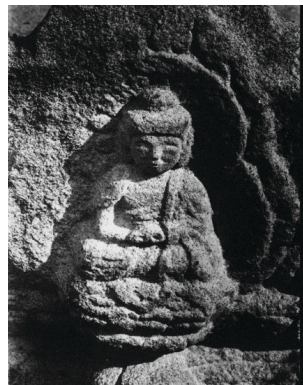
5) 지광국사탑 부조 사방불

지광국사탑의 옥개석에는 동서남북 사방에 사방불이 새겨져 있다. 이 상들은 크기가 작을 뿐 아니라 일부는 훼손되어 유리건판 사진으로만 확인되지만 편년자료가 영세한 고려중기 불상 가운데 제작시기가 확실한 작품인 셈이다. 사방불의 모습은 곡면적으로 처리된 동글동글한 형태로 체구도 아담한데, 법천사지에 있는 불상광배의 중앙 화불과 조형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불상 3구는 寶珠를 손에 들었거나(동면), 阿彌陀定印을 결하고 있거나(서면), 施無畏印을 결하고 있으며(북면), 나머지 한 구는 보살형의 존상(남면)으로 머리에 풍모[두건]를 쓰고 손에 보주를 들고 있는 형상으로 표현되어 있다(도 35). 각 불상은 사방불의 하나로 동쪽에 약사, 서쪽에 아미타, 북쪽에 석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도 35-1. 智光國師塔 옥개석 부조 약사불좌상(동면)



도 35-2. 智光國師塔 옥개석 부조 아미타불좌상(서면)



도 35-3. 智光國師塔 옥개석 부조 보살좌상(남면)



도 35-4. 智光國師塔 옥개석 부조 불좌상(북면)

73 다른 석등부재는 구름 위에 합장한 비천이 새겨져있는 것이고, 또 다른 석등부재는 구름 위에 합장한 비천이 새겨져있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화사석편이 1965년에도 법천사지에서 발견되었는데, 구름 위에 공양상과 비천이 조각되어 있었다. 높이 약 42cm, 폭 16cm의 육각화사석의 일부로 탑 비전 주변의 건물기단석 밑에 매몰되어 있었다고 하므로 이 화사석편 역시 매몰재로 제사용되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화사석편에는 구름 위에 비천상이 부조되어 있었고 그 아래 두 손으로 무언가를 공양하는 공양상이 운문 위에 부조되어 있었다. 金東賢, 『原城 法泉寺址 發見 石燈火舍片』, 『考古美術』 제6권 제 3·4호 통권 56·57(1965), p.66; 최성은, 앞의 논문(2015), p.89 참조.

생각되는데, 풍모를 쓴 남면의 존상은 도상적인 면에서나 교리적인 면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우선 이 시기에 풍모를 쓴 상은 僧伽大師나 지장보살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손에 보주를 지물로 든 것으로 보아 지장보살상의 도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통일신라 이래 조성된 사방불 가운데 지장보살상이 들어간 예는 찾아볼 수 없다. 또 시간적 개념으로 과거, 현재, 미래불을 배치한다면 지장보살상보다는 미륵보살상이 더 적절할 것이지만, 보주를 들고 풍모를 쓴 미륵보살상의 도상 역시 아직까지 알려진 예가 없다. 아울러 보주형태의 지물을 미륵불로 추정되는 용인 용덕사 석불입상이 손에 들고 있는 龍華峯⁷⁴과 같이 생각될 수도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 이와 관련하여 법상종 사찰로 알려진 奈良 法隆寺 금당 네 벽에 아미타, 약사, 미륵, 석가의 4불 정토의 변상도가 그려졌던 것에 대해서 『大寶積經』과 같은 대승경전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법상4불’이라는 견해가 제기된 바 있다.⁷⁵ 또한 오대 吳越의 云岩寺塔출토 석제경함(959-961)의 네 면에 아미타, 약사, 미륵, 석가의 4불이 부조된 예가 있고, 평양 영명사 석조팔각불감의 안쪽면에 약사(東), 아미타(西), 석가(南), 미륵보살(北)이 새겨진 것도 존상명 추정에 참고가 된다.⁷⁶

4. 김제 금산사

금산사는 중대신라 승려인 진표의 출가사찰이며 그가 중창했다고 전해오는 사찰이다. 금강산 발연사의 주지 瑩峇이 지은 「진표율사진신장골탐비명」(1199)⁷⁷에 의하면, 진표는 금산사에서 출가하였고 이후 변산 不思議房에서 극단적인 참회수행을 통해 지장보살과 미륵보살을 친견하고 戒法과 簡子을 전해 받았으며, 금산사 중창불사를 시작하여 미륵장륙상을 鑄成하여 금당의 주존으로 봉안하고 금당의 남벽에는 미륵보살[자씨세존]이 도솔천에서 내려와 진표에게 계법을

74 孫永文, 「高麗時代 龍華手印 彌勒圖像의 研究」, 『美術史學研究』 252(2006), pp.129-131 참조.

75 福井利吉郎, 「法隆寺壁畫の主題に就いて(3)」, 『藝文』 8-6(1917), pp.489-502.

76 蘇州博物館, 『蘇州博物館藏 虎丘云岩寺塔, 瑞光寺塔文物』(北京: 文物出版社, 2006), pp.24-29; 孫永文, 「平壤 永明寺 石造 佛龕」, 『聖寶』 5(2003), pp.73-88 참조.

77 진표는 12세에 금산사 順濟(崇濟)法師에게서 출가하여 沙彌戒法과 占察善惡業報經(점찰경)을 받고 엄격한 참회수행하여 지장보살로부터 가사, 발우, 戒本을 받고, 慈氏보살(미륵)로부터는 189개의 간자 가운데 제 8과 제 9의 2개의 간자를 받았으며 來生에 국왕의 몸을 받을 것이고 도솔천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수기를 받았다(762년). 「關東楓嶽山鉢淵藪眞表律師眞身藏骨立石碑銘」, 李智冠, 앞의 책(1997), pp.33-38. 일연의 제자 無極(寶鑑國師 混丘, 1251-1322)은 이 碑銘을 초하여 『三國遺事』 眞表傳簡에 附記하였다. 진표의 생애에 대한 사료분석에 대해서는, 金南允, 「眞表의 傳記 資料 檢討」, 『國史館論叢』 78(1997), pp.85-114 참조.

주던 모습을 그려 모셨다고 한다.⁷⁸ 미륵을 신앙하면서 점찰경⁷⁹을 근거로 참회수행을 하였던 진표가 법상종 승려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어 왔으나⁸⁰ 진표 이전에 유식학에 조예가 깊은 義寂이 금산사에 주석했다는 점에서 중대신라기부터 금산사가 유식학, 즉 법상종과 관련이 깊은 사찰이었다는 것은 알 수 있다.⁸¹

그런데 진표가 단월들에게 권하여 미륵장육존상을 주조하였다는 것은 재정적인 면에서 뿐 아니라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중앙왕실이나 왕경장인들의 도움이 없이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로서⁸²

78 “師受教法已，欲創金山寺下山而來，至大淵津，忽有龍王出獻玉袈裟，將八萬眷屬侍往金山，四方子來不日成之，復感慈氏從兜率駕雲而下與師受戒法，師勸檀緣鑄成弥勒丈六像，復畫下降受戒威儀之相於金堂南壁口，於甲辰六月九日鑄成丙午五月一日安置金堂，是歲大曆元年也。”『三國遺事』卷第4，義解 第5，「關東楓岳鉢淵菰石記。」 진표가 금산사를 중창한 시기는 764년에서 766년까지로 장륙미륵상을 봉안하고 慶讚法會를 개설하여 三七日 동안 占察道場을 열어 고통에 빠져있는 중생을 구제하였다(李智冠, 앞의 책, 1997, p.39). 이와 같은 대규모 佛事에는 왕실귀족들의 후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진표는 경덕왕과 귀족들에게 보살계를 주었고 그들의 시주를 받아 佛事를 널리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金南允, 앞의 논문(1997), p.101.

79 점찰경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偽經으로 占察善惡業報經, 地藏菩薩業報經, 大乘實義經이라고도 한다. 일연은 이 경이 상교의 대승으로 넉넉하다는 견해를 밝혀 법상종에 속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하였다. 牧田諦亮, 『偽經研究』(京都大, 1976), pp.108-114; 金南允, 앞의 논문(1997), p.102.

80 과거 진표는 법상종의 개창조(金映遂) 혹은 유가종(법상종)의 宗祖(權相老)로 받아들여져 왔으나, 불교학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면서 점찰법이 유식학과 무관하며 진표의 교법이나 지장신앙은 법상종과는 관련이 없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金煥泰, 蔡印弘). 여기에 대해 진표가 원광의 攝論宗의 실천행을 이어받아 원측·태현계의 법상종과 다른 새로운 계통의 법상종을 개창한 것으로 보고 중대신라에는 미륵과 아미타를 신앙하는 태현계 법상종과 미륵과 지장을 신앙하는 진표계 법상종의 두 갈래가 있다고 보는 시각(文明大), 진표가 미륵보살로부터 받은 제 8, 9간자의 新熏種子(始覺)와 法爾(本有)種子(本覺)가 唯識學의 종자설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진표가 신유식사상을 받아들인 법상종 승려라고 본 견해(김남운)가 제기되었다. 한편 진표가 받았다고 하는 제 8, 9간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진표를 법상종 승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박광연)도 있다. 金映遂, 「五教兩宗에 對하여」, 『震檀學報』8(1937), pp.74-100; 權相老, 「朝鮮佛教史概說」(佛教時報社, 1939), p. 13; 金煥泰, 「新羅 占察法會와 眞表의 敎法研究」, 『佛敎學報』9(1972), pp.99-136; 同著, 「占察法會와 眞表의 敎法思想」, 『崇山朴吉眞博士華甲紀念 韓國佛教思想史』(1975); 同著, 「新羅佛教研究」(民族文化社, 1987), pp.381-404 재수록; 蔡印弘, 「新羅 眞表律師 研究I: 修懺의 行蹟과 系譜」, 『佛敎學報』23(1986), pp.35-68; 文明大, 앞의 논문(1974)(同著, 「한국의 불상조각2-원음과 고전미」(예경, 2003), pp.71-110 재수록; 金南允, 「신라법상종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pp.122-123; 同著, 앞의 논문(1997), pp.105-107; 박광연, 「신라 진표(眞表)의 미륵신앙 재고찰」, 『佛敎學研究』37(2013), pp.273-304.

81 『大覺國師文集』에 언급된 “金山寺寂法師”는 義寂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義寂은 唐에서 玄奘 문화에서 유식학(법상종)을 수학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 天台宗의 개창자인 最澄는 義寂의 저술로 생각되는 『大乘義林章』을 법상종의 최종적 견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의 저술로 알려진 『법화경론술기』에는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면서 『瑜伽論』, 『成唯識論』, 구기의 저술 등과 같은 유식학 문헌을 활용하였고, 일본에서 새로 발견된 『無量壽經述記』(683-685 추정)에는 玄奘이 번역한 신역경전들이 다수 인용되어 있다. 최연식, 「의적의 사상 경향과 海東 법상종에서의 위상」, 『佛敎學研究』6(2003), pp.50-51; 박광연, 「신라 의적의 법화경 이해 - 法華經論述記 분석을 중심으로」, 『佛敎學研究』21(2008), pp.204-205; 최연식, 「義寂 연구의 현황과 과제」, 『東國史學』56(2014), pp.1-36 참조.

82 금산사 미륵장육존상보다 십여 년 전에 조성된 분황사 금동약사여래상(755년)이나 황룡사 범종(754년)의 주조에 참여했던 장인집단의 참여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신라하대에 실상사에서 半丈六의 대형 철불(높이 273cm)을 주조했을 때와 유사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성은, 「신라하대 實相寺 철조여래좌상에 대한 고찰」, 『韓國史學報』54(2014), pp.166-169 참조.

당시 금산사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불사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융성하였던 금산사는 신라하대의 혼란기를 거치면서 퇴락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전하는 바와 같이 후백제시기에 견훤에 의해 대대적인 중창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⁸³. 금산사는 후백제 영역에 있던 신라고찰로 도읍인 전주에 가까웠고 견훤이 말년에 아들들에 의해 유폐되었던 곳이기도 했던 만큼 후백제왕실과 밀접한 사찰이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⁸⁴

중대신라 이래 唯識의 전통이 내려오는 금산사는 후백제의 옛 지역에 위치한다는 지정학적 이유 뿐 아니라 나말여초에 禪宗이 확산되면서 법상종을 비롯한 교종이 위축되었던 상황 때문에⁸⁵ 고려초기에는 사세가 약화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고려중기에 와서 혜덕왕사 韶顯(1038-1096)에 의해 대대적으로 중창되면서 명실공히 법상종 사찰로서 그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소현은 문종의 외척이었던 仁州李氏 가문의 李子淵의 아들로⁸⁶ 11세에 개령의 海安寺에서 해린에게 출가하여⁸⁷ 금광명경과 성유식론⁸⁸을 배웠고, 해안사 주지를 거쳐 문종 33년(1079)에 금산사 주지를 맡아 선종 1년(1084) 현화사 주지로 임명되어 개령으로 올라갈 때까지 주석하였다.⁸⁹

83 “金山寺在母岳山 後百濟 甄萱所創...(후략). 『新增東國輿地勝覽』 권 34 金溝縣 佛宇條.

84 사찰 입구에 있는 石城(岑城, 金山山城)은 견훤이 말년에 쌓은 것이라고 전해온다. 이 성의 성문은 견훤성문이라고도 하며 예로부터 금산사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金山寺實測調査報告書』(1987) p.26; 김남윤, 이응목, 소재구, 손재식, 『금산사』(서울: 대원사, 2002), pp.27-28.

85 고려초의 법상종과 관련해서 태조가 자신의 옛집에 光明寺를 세우고 瑜伽法師 曇詒를 주석하게 했다가, 정종과 광종의 생모인 忠州劉氏 소생 證通國師가 고려초에 法住寺를 중창하였다는 後代의 기록이 있다. 朝鮮總督府, 『朝鮮寺刹史料』 上(1911), p.127;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上(1918), p.182; 金仁德, 「高麗時代 瑜伽思想의 展開와 彌勒信仰」, 『韓國彌勒思想研究』(1987), p.161.

86 李子淵은 문종의 최대 외척세력으로 그의 세 딸이 모두 문종의 비이다. 『高麗史』 88권, 열전 제 1.

87 소현이 법상종 승려 가운데 해린에게 출가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토니노 푸치오니, 「高麗時代 法相宗 教團의 推移」(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6) p.75; 박현진, 「高麗中期 慧德王師 韶顯의 활동과 위상」, 『全北史學』 45(2014), pp.101-104 참조.

88 成唯識論은 인도 유식학을 집대성한 世親(Vasubandhu, 400-480경)의 저술인 唯識三十頌에 대한 주석으로 玄奘(632-682)이 인도 유학 후 귀국하여 전한 새로운 불교학인 新唯識의 典籍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이다. 요컨대 법상종은 현상이 제자인 慈恩 基(窺基, 632-682)와 함께 번역한 護法(Dharmapala, 530-561)의 성유식론을 정통의 교학으로 하여 성립된 것이었다. 唐의 新譯佛敎을 신속하게 받아들이고 있던 신라에서도 여러 유식학승들이 성유식론을 주석하였고, 太賢도 그의 成唯識論學記에서 ‘護法正宗’이라 하여 신유식의 중심의 교학체계를 수립하였는데, 이후로도 성유식론은 법상종 교학의 중심이 된다. 金南允, 앞의 논문(1995), pp.64-80 참조.

89 소현은 조카인 李資儀가 숙종에 의해 제거된 이듬해 임직하였고 그의 탐비는 임직하고 15년이 지난 예종 6년(1111) 금산사에 세워졌다. 그의 문하에는 문종의 여섯째 왕자인 導生僧統 鏡이 제자로 있었는데, 법주사와 금산사 주지를 겸하고 있던 중 반란음모사건에 연루되어 죽게 된다. 李智冠 편, 「金溝 金山寺 慧德王師 眞應塔碑文」, 앞의 책(1996), pp. 20-69; 『高麗史』 권8 세가 8 문종 경술 24년 5월; 同 90, 列傳 3 宗室 1 도생승통 탕.

소현은 금산사에 광고원구와 봉천원구를 신설하여 광고원에서는 章疏를 간행하였는데,⁹⁰ 院의 중앙에 금당을 만들어 노사나불상과 玄奘(602-664), 慈恩 基(632-682)⁹¹의 상을 그려 봉안하였다. 여기서 문종 37년(1083)부터 말년(1096)에 이르기까지 중국 법상종의 실제적인 개창조라고 할 수 있는 자은 기가 찬술한 『法華玄贊』, 『唯識述記』 등의 章疏 32부 353권을 수집하여 교정하고 開板하였다.⁹² 또한 ‘자씨존상[미륵존상]’을 그려 모시고 매년 7월 14일 법연을 베풀고 승려들을 모아서 예참하고 재를 설하기를 문종 29년(1075)부터 숙종원년(1096)까지 22년간 계속하였다.⁹³ 또 한편으로는 법상종 소속의 여러 사찰에 정재를 시납하여 매년 두차례 법회를 개설하게 하고, 뛰어난 화가를 모집하여 석가여래와 현장, 자은기, 해동六祖⁹⁴의 상을 한 폭에 그려 각 사찰들에 봉안하게 함으로써 법상종의 계보를 확립하고 널리 지방사찰에 이르기까지 결속력을 다지려고 애썼다.⁹⁵

90 소현은 스승인 해린을 따라 어린 시절부터 청년기에 이르는 거의 20년간(1050-1070년)을 현화사에서 지내면서 당시 현화사에서 진행되고 있던 조조대장경 간행사업(1011-1087년)을 가까이에서 보고 참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史文卿, 「11세기 후반 慧德王師 韶顯의 金山寺 光敎院 설치와 法相宗」, 『忠南史學』 10(1998), p.40.

91 法相宗의 宗祖인 基는 ‘窺基’라고도 불리는데, 원래 그의 이름은 ‘基’였고 그가 쓴 글에서나 금석문, 畫讚銘 등에도 모두 ‘基’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開元釋經錄』이나 『宋高僧傳』 등에는 ‘규기’라고 표기하고 있다. 深浦正文, 『唯識學研究』上(東京: 永田文昌堂, 1954), p.256; 江里口友子, 「法相宗系寺院の尊像配置について ―興福寺を中心として―」, 町田甲一先生古稀紀念會, 『論叢佛教美術史』(東京: 吉川弘文館, 1986), p.441의 각주 2; 南東信, 앞의 논문(2009), pp.176-178 참조.

92 소현이 광고원에서 『法華玄贊』을 간행한 것을 통해서 당시 법상종에서 법화경에 대한 관심과 존송을 엿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고려전기 왕실이 법화경을 우호하였기 때문에 왕실과 관련을 맺고자 했던 승려들에게 법화경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요구되었을 것이고 僧科에도 법화경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출제되었을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박광연, 「고려전기 유가업의 법화경 전통 계승과 그 의미」, 『역사와 현실』 71(2009), pp.80-81.

93 이와 같은 소현의 불사에 대해 들은 宣宗은 1083년 여러 彩畫와 御書를 하사하였다. 李智冠 편, 「金溝 金山寺 慧德王師 眞應塔碑文」, 앞의 책(1996), pp.27-28, p.52.

94 소현이 그림으로 나타냈던 海東六祖 가운데 원효, 태현 외에 나머지 四祖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를 제기하고 있다. 許興植은 元曉 - 憬興 - 圓測 - 道詮 - 太賢 - 眞表로, 金杜珍은 元曉 - 太賢 - 眞表 - 永深·心地·釋冲·寬雄·融哲 - 鼎賢 - 海麟으로, 이지관은 원효 - 태현 - 진표 - 영심 - 해린 - 소현으로, 이인재는 원효 - 태현 - 법경 - 정현 - 해린 - 영념으로 보았다. 특히 김수태는 소현이 태현계 법상종을 계승했기 때문에 해동육조 가운데 진표가 포함되어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許興植, 「高麗前期 佛教界와 天台宗의 形成過程」, 『韓國學報』 4-2(1978), p.95; 金杜珍, 「고려중기 현화사의 창건과 법상종의 융성」, 『한우근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서울: 지식산업사, 1981), pp.218-219; 李智冠 편, 「金溝 金山寺 慧德王師 眞應塔碑文」, 앞의 책, p.53; 이인재, 「법천사와 해소, 지광국사 연구의 새로운 진전을 위하여」, 『북원문화와 법천사(제6회 윤곡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2006)』, p.12; 김수태, 「新羅末 高麗前期 淸州金氏와 法相宗」, 『中原文化論叢』 1(1997), pp.30-31 참조.

95 소현은 이 그림들을 여러 절에 보내 봉안하게 하면서 “상을 보고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공경함으로부터 신심을 내며 신심에서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였다(“畫成釋迦如來 及裝基二師 海東六祖像 都一幅(?) 各安于其寺 欲令義學者 觀像生敬 自敬生信 自信得慧 有以勸焉”). 소현이 간행사업이나 회화봉안을 통해 玄奘과 慈恩 基를 부각시킨 것에 대해, 그의 비문에는 “玄奘은 유식론의 개창조이며, 基는 유식론문을 보수하여 저술한 宗祖이므로 만약 基가 없었다면 어찌 현장의 저술이 확장될 수 있었겠는가?” 하는 『宋高僧傳』의 내용을 인용하여(『宋高僧傳』 4 『大慈恩寺 窺基傳』, 『大正新修大藏經』 50, p.726 中·下) 설명하고 있다. 李智冠 편, 「金溝 金山寺 慧德王師 眞應塔碑文」, 앞의 책(1996), pp.28-29, p.50, p.53; 史文卿, 앞의 논문(1998), p.44.

소현이 금산사 광교원의 금당에 노사나불상을 그려 봉안하고, 지방의 여러 법상종사찰에 현장, 자은 기, 해동육조의 상을 석가불상과 함께 그려 보냈다는 것에 대해, ‘미륵’을 주존으로 모시는 법상종사찰의 일반적인 봉안양상이 고려중기에 와서 변화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⁹⁶ 心地가 신라하대에 창건한 桐華寺의 비로암에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 봉안된 것은 화엄경의 주존인 비로자나불이 법상종사찰에 조성되는 예를 보여준다. 또한 심지가 민애왕을 추선하기 위해 비로암 삼층석탑(863년)에서 발견된 금동사리함의 네 면에 새겨진 사방불 가운데 보관여래형 비로자나불좌상이 표현되어 있는 사실도 주목된다.⁹⁷ 화엄경은 유가사지론, 해심밀경, 십지경론 등과 함께 법상종의 소의경론 가운데 하나였으며⁹⁸ 해린이 문종 원년(1046) 궁중에서 화엄경에 설해진 ‘唯心の妙義’를 강설했다는 기록⁹⁹에서도 당시 법상종 승려들의 화엄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를 엿볼 수 있다.



도 36. 慈恩大師像, 平安時代, 13세기, 奈良 興福寺

노사나불과 함께 그려진 현장과 자은 기의 상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으나, 일본의 법상종 사찰인 興福寺, 法隆寺, 藥師寺 등에서 전해오는 12, 13세기의 자은 기 상은 모두 똑같이 뺨에 살이 많고, 눈과 눈썹이 위로 치켜 올라간 모습을 하고, 깃과 소매가 있는 중국식 승복 위에 가사를 걸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도 36). 그리고 현장의 상(도 37)은 예외없이 인도식으로 가사를 걸치고 손에 경권을 든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어, 법상조의 開祖와 宗祖인 이 두 조사상의 典型이 전해져 내려왔던 듯하다.¹⁰⁰ 張彦遠의 『歷代名畫記』(853년경) 「記兩京外州寺觀壁畫」에는 長安 總持寺 三藏院에 李仲昌이 그린 자은대사 벽화가 있었다고 하며, 『宋高僧傳』 권 4(988년)에는

96 史文卿, 앞의 논문(1998), p.45.

97 黃壽永編, 『新羅敏敏大王石塔記』, 『韓國金石遺文』(서울: 일지사, 1976), pp.50-53.

98 김남윤, 앞의 논문(1992), pp.115-116; 同著, 앞의 논문(1996), pp.133-134; 이인재, 앞의 논문(2006), pp.7-8 참조. 광종대에 실시된 교종의 승과에서는 광종과 긴밀했던 균여의 화엄사상이 정통의 견해도 채택되었으므로 화엄종과 법상종의 교종의 승과에서 가장 중시된 경전은 화엄경이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許興植, 『僧科制度와 그 機能』, 『高麗佛敎史研究』(서울: 一潮閣, 1986), pp.375-378 참조.

99 李智冠 편, 『원주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비문』, 앞의 책(1995), p.375.

100 平安後期 12세기부터 鎌倉, 南北朝, 室町時代の 慈恩大師像은 독존상으로 여러 점 전해오는 것에 반해서 玄奘의 상은 법상 조사들과 함께 그려진 群像에서만 찾아볼 수 있어 법상의 宗朝인 慈恩基의 상이 훨씬 중요하게 여겨졌던 듯하다. 朝日新聞社, 『興福寺國寶展 鎌倉復興期のみほとけ』(2004), pp.151-163.



도 37. 목조미륵보살상감 屏繪(玄奘三藏),鎌倉時代 13-14세기, 奈良 興福寺

자은대사의 상[影]이 세상에 많이 유포되어 있다고 하면서 당 고종(혹은 玄宗)이 썼다는 御製の 畫讃을 기록하고 있다. 현장과 자은 기의 초상이 당이나 북송에서 일본으로 전해져 있었다면, 당연히 고려 법상종 사찰에도 이 두 조사의 초상이 알려져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소현이 석가불상과 함께 현장, 자은 기, 해동육조의 상을 그려서 유포한 점에 대해서는 소현의 스승인 해린이 왕실에서 법화경을 강설한 사실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고려중기 법상종 승려들이 법화경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불교의 교조인 석존을 법상종 여러 조사들과 같은 화면에 묘사함으로써 법상의 계통인식, 즉 정통성과 위상을 확립하려 했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¹⁰¹, 이와 유사한 그림의 도상이 이미 고려에 알려져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석존과 함께 법상종의 조사들을 한 폭에 그린 그림이 가마쿠라시대에 제작된 「法相祖師圖」 가운데 전해오고 있는데(도 38), 이 그림에는 석존을 본존으로 하여 화면의 중·하단에 자씨[彌勒]보살과 無著, 世親을 비롯하여 인도와 중국, 일본의 법상종 조사들이 표현되어 있다.¹⁰² 이 그림처럼 일본의 법상종 조사가 표현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미륵보살을 본존으로 하여 인도의 4조사(無著, 世親, 護法, 戒賢)와 중국의 4조사(玄奘, 慈恩, 慧沼, 智周)를 표현한 8조사 「법상조사도」도 여러 점 전한다(도 39). 아마도 소현은 이와 같은 형식의 「법상조사도」를 기초로 하여 석존을 본존으로 현장·자은 기와 해동 6조사를 그리게 하였을 것이다.

101 소현이 광교원에서 『법화현찬』을 간행한 이유에 대해서 고려전기 왕실의 법화경에 대한 우호가 높았고 승려들도 기본적으로 법화경에 대한 소양이 요구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꼽고 있다(박광연, 앞의 논문(2009), p.80). 또한 釋尊과 유가 조사들의 그림을 제작 유포한 것은 법상종의 宗譜를 통일하는 것 뿐 아니라 다른 종파에 대한 법상종의 종파의식을 고취하고 지방으로 널리 확장시키려는 의미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최병현, 「승려-해덕왕사 소현과 귀족불교」, 『한국사시민강좌』 39(2006), p.62).

102 석존과 미륵을 비롯해서 인도 유가유식의 4조사, 중국의 4조사, 일본의 3조사가 표현되어 있는데, 無著, 世親, 護法, 戒賢은 인도의 4조사이고, 玄奘, 慈恩基, 淄州(慧沼), 濮陽(智周)은 중국의 4조사이며, 玄昉, 善珠, 眞興은 일본 3조사이다. 이와 같은 法相祖師圖를 일본에서는 「法相曼荼羅圖」 또는 「唯識曼荼羅圖」라고 하며 법상종 사찰인 法隆寺, 藥師寺, 興福寺에 모두 전해오고 있다. 伊東史朗, 『日本の美術 No.316 彌勒像』(東京: 至文堂, 1992), pp.49-51; 吉田典代, 「根津美術館藏法相宗曼荼羅をめぐって」, 『佛教藝術』 214(1994), pp.15-38; 根津美術館, 『根津美術館 百華撰』(2009), p.50 도 37 및 도판설명.



도 38. 석가여래와 法相祖師圖, 鎌倉時代 14세기, 根津美術館



도 39. 미륵보살과 법상 6조사도, 鎌倉時代 14세기, 奈良 法隆寺

한편, 소현이 22년간 매년 예참하고 설재하였던 자씨존상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로는 고려 불교계에 알려져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북송초의 판화 「미륵보살도」를 꼽을 수 있다(도 40). 북송 궁정도화원의 待詔였던 高文進이 그린 「미륵보살도」를 밑그림으로 하여 옹희 원년(984)에 수도 開封에서 雕版된 이 판화는 일본의 순례승 旡然이 옹희 2년(985)에 절강성 태주에서 모각하여 일본으로 가져온 교토 清涼寺 목조석가불입상의 腹藏 속에 넣어졌던 것으로서 1954년 이 불상이 수리될 때 발견된 여러 복장물 가운데 하나였다.¹⁰³ 이 「미륵보살도」는 도솔천상의 미륵보살을

103 석존이 마야부인을 뱌려 도리천에 올라갔을 때, 석존을 그리워하며 우다야나왕[優填王]이 전단목으로 조성하였다는 전설적인 優填王思慕像이라고 알려진 이 불상은 오랫동안 楊洲 開元寺에 봉안되어 있었으나, 旡然이 입송했을 때는 開封의 皇宮으로 옮겨져 있었다. 旡然은 이 불상을 절강성 台州에서 조각가 張延皎, 張延襲 형제에게 모각하게 하여 일본으로 가져와 京都 嵯峨 棲霞寺에 모셨는데, 이 절의 後身이 지금의 京都 清涼寺이다. 奈良國立博物館, 『東歷アジアの仏たち』(1996), p.125 도 133; 泉武夫, 『異色の彌勒菩薩畫像—彌勒圖像の一系譜』, 『學叢』19(京都國立博物館, 1996), pp.29-31; 奥健夫, 『日本の美術 No.513 清涼寺釋迦如來像』(東京: 至文堂, 2009), pp.17-49.



도 40. 판화미륵보살도, 북송 984년, 京都 清凉寺



도 41. 미륵보살도,鎌倉時代 13세기, 京都 醍醐寺

표현한 것으로서 5불이 표현된 원통형의 보관을 쓰고 團扇을 손에 든 모습인데, 이와 거의 똑같은 도상의 미륵보살도가 일본의 여러 법상종 사찰에 전해오고 있어(도 41), 이 미륵보살도와 동일한 판화가 북송으로부터 여러 점 전해졌다고 생각되고 있다.¹⁰⁴ 그렇다면 당시 북송과의 교류가 매우 활발했던 고려초에 이와 같거나 유사한 판화가 전해지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이 미륵보살도에서 보이는 복잡한 착의형식이나 지물로 들고 있는 단선은 고려 불교계의 취향에 맞게 변형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그 예로서 높은 원통형 보관을 쓰고 오른손에 龍華枝를 든 평양 永明寺 석조불감(現 용화사 이전)의 미륵보살상(도 42)¹⁰⁵을 비롯한 고려전기의 원통고관형

104 이 판화는 청량사 석가여래입상의 복장에 납입되었으므로 세간에 공개될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화와 동일한 도상으로 그려진 미륵불화가 전해오는 것은 당시 동일한 판본이 더 전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다. 奥 健夫, 『清凉寺釋迦如來像』, 『日本美術』 No.513(東京: 至文堂, 2009), p.65.

105 미륵보살상은 불감 안쪽 북면에 부조되어 있다. 손영문, 앞의 논문(2003), pp.82-83; 同, 앞의 논문(2006), p.137 및 도 30. 참조.



도 42. 永明寺 석조불감 미륵보살상 탁본,
고려전기, 現 용화사 이전(사진 손영문).

보살상들¹⁰⁶이나 고려 후기 「아미타구존도」에서 원통형의 5불보관[五智寶冠]을 쓰고 있는 미륵보살(도 19)이 표현된 것은 이와 같은 추정을 뒷받침한다.¹⁰⁷ 따라서 고려중기의 법상종 사찰에도 북송 판화 미륵보살도와 유사한 미륵보살도가 봉안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금산사의 석조문화재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석조연화대좌이다. 이 대좌(도 43)는 현재 대적광전 석축 아래 우측에 놓여있는데, 원래 위치는 알 수 없으나 그 규모로 보아 장육상 높이의 불상이 봉안되었던 대좌라고 생각된다.¹⁰⁸ 대좌의 윗면에는 불상의 양쪽 발바닥에서 대좌로 연결되는 축을 끼웠을 것으로 생각되는 방형의 구멍이 뚫려있어 대좌위에 안치되어 있던 불상이 입상이며 금동불과 같은 금속제 불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대 양면좌의 연판은 두 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연판에 네 개의 연잎이 겹쳐진 형태로 화려하면서도 웅장하다. 중대석은 육각으로 상대에 비해 높이가 낮아 안정감을 주며, 중대석 각 면에 새겨진 안상의 중앙에는 꽃머리장식이 있는데, 이와 같은 표현은 고려중기에 유행하여 제천 사자빈신사지 석탑(1022)을 비롯하여 많은 예가 보이고 있으며(도 44) 금산사 대좌가 고려중기로 편년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폭이 넓은 하대석 받침은 10각형으로 각 면에 새겨진 안상 가운데 두 면에는 사자상이, 여덟 면에는 화문(花紋)이 새겨져 있다. 하대석의 폭이 3미터(10尺)에 가깝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장육상(16尺)을 세울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¹⁰⁹

금산사 석조대좌는 상·중·하단을 갖춘 삼단연화대좌 형식으로 현존하는 고려전기 불교조각

106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을 비롯하여 김천 은기리 마애보살상,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상(981년) 등을 꼽을 수 있다. 최성은, 앞의 책(2013), pp.118-126 참조.

107 菊竹淳一·鄭于澤 著, 李元惠 譯, 『高麗時代の佛畫』 v.1 도판편(서울: 시공사, 1996), p.48 圖 16.

108 석조대좌는 높이 1.64m, 상면폭 1.77m, 하부폭 3.136m의 크기로 대좌 상면에 뚫려있는 구멍은 길이 27cm, 폭 24cm, 깊이 52cm이다. 『金山寺誌』에는 현재 대적광전 앞뜰에 있는 육각다층탑(청석탑)이 원래는 奉天院의 大光明殿 앞에 있었는데, 조선 仁祖(1623-1649) 때 대광명전을 移建할 때 옮겨왔다고 하므로 석조대좌 역시 임진왜란 이후 금산사가 중건될 때 다른 곳에서 옮겨왔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원래부터 현재 위치에 있었다면 이 대좌가 있는 자리에 佛殿이 있었던 것이 된다. 韓國佛敎研究院, 앞의 책(1977), pp.83-84;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앞의 책(1987), pp.521-522(실측도면); 김남윤, 이응목, 소재규, 손재식, 앞의 책(2002), pp.100-104 참조.

109 광배 윗면에 광배를 끼운 구멍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광배는 따로 설치하여 불상의 背面과 연결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 43-1. 金山寺 석조연화대좌, 고려, 전복 김제



도 43-2. 金山寺 석조연화대좌 중대 안상부분

가운데 논산 개태사 석조삼존불입상의 대좌나 안성 죽산리 석불입상의 대좌,¹¹⁰ 평창 월정사 팔각구층탑 출토 은제여래입상 대좌의 단순화된 형태와는 달리 세부조각이 정교하다. 이것과 비교될 수 있는 대좌는 경주 황룡사지출토의 금동연화대좌(도 45), 경주 월지동궁출토 금동불입상의 대좌(도 46)와 같은 통일신라시대 대좌로 생각된다. 물론 금산사 대좌는 통일신라시대 금동불 대좌에 비해 상대가 이중으로 복잡해지고 하대의 폭도 넓어졌으나, 기본적으로 통일신라시대 금동불 대좌를 範本으로 하여 귀족적이고 화려한 형태를 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도 44. 사자빈신사지 석탑 기반 안상부분, 고려 1022년, 충북 제천



도 45. 황룡사지 출토 금동연화대좌, 통일신라시대, 국립경주박물관

110 현재 딛고 있는 복련좌가 뒤집혀진 양련좌이고 불상 앞에 놓인 석조복련좌와 서로 짝을 이룬다고 하여도 매우 단순한 형태임이 분명하다.

Ⅲ. 고려중기 법상종 사원 불교미술의 성격



도 46. 월지동굴 출토 금동불입상,
통일신라시대, 국립경주박물관

지금까지 살펴본 고려중기의 법상종 사찰 네 곳에서 전하는 불교조각은 단편적인 자료들로서 당시 법상종 사찰의 불교미술을 재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현존 자료와 문헌기록을 토대로 고려중기 법상종 사원의 미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내용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일반적으로 통일신라시대의 법상종은 미륵과 아미타를 모시고 교화에 중점을 둔 태현계 법상종과 미륵과 지장을 모시고 실천수행을 강조하는 진표계 법상종으로 나뉘어진다고 이해되고 있으나,¹¹¹ 현존하는 유물이나 금석문을 통해서 본 고려중기 법상종 미술에서는 진표계 법상종의 흔적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대지국사 법경의 비문에 태현과 그의 스승인 도증이 언급되고, 혜덕왕사 소현의 비문에도 해동법상종 6조 가운데 ‘태현’이 언급되고 있는 점이나, 현화사에서 매년 ‘아미타회’와 ‘미륵보살회’가 설행되었던 기록을 통해서도 이 시기의 중앙 불교계에서는 태현계 법상종의 전통이 강하게 이어져왔음을 알 수 있다.¹¹² 현종 측근에서 핵심세력이었다고 생각되는 최사위가 중수·조영한 사찰 가운데 ‘진도 점찰원’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¹¹³ 이것은 지방에 소재하는 원관사찰로서 중앙의 법상종 사원들과의 연관성은 알 수 없어 보인다. 다소 조성 시기가 내려오지만 동화사 염불암 마애아미타불상과 미륵보살상은 법상종사찰에서 아미타불과 함께 미륵존상을 조성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¹¹⁴ 동화사는 헌덕왕의 왕자인 심지가 신라하대에 세운 사찰로 진표계 법상종의

111 감산사를 창건한 金志誠은 법상종의 대표적인 소의경론인 『瑜伽師地論』을 읽었다고 하며, 감산사의 금당에는 미륵보살입상을, 강당에는 아미타불입상을 봉안했다. 신라 유식의 宗祖라고 할 수 있는 태현이 주석하였다는 경주 남산 苴長寺의 존상들도 미륵존상과 아미타불로 추정되고 있다. 文明大, 앞의 논문(1974), pp.75-105(同著, 앞의 책(2003), pp.71-110에 재수록); 同著, 「太賢과 苴長寺 佛教彫刻」, 『白山學報』 17(1974), p.156; 김두진, 앞의 논문(1981), p.217 참조.

112 태현계 법상종의 주존불이 미륵이고 부존불이 아미타불이라는 설에 대해서 태현이 주석하였다고 전해오는 경주 남산 용장사지 마애불좌상이 석가불의 향마촉지인 수인을 결하고 있는 점을 들어서 아미타불이 아닐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沈曉燮, 「新羅 瑜伽派 信仰의 歷史의 性格 - 7·8세기를 중심으로 -」, 『東國歷史教育』 6(1998), pp.19-20), 고려중기 법상종의 불상봉안과 설재 등의 기록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13 金龍善, 앞의 책(2006), pp.25-27; 김혜완, 앞의 논문(2002), pp.70-71 참조.

114 孫永文, 앞의 논문(2006), pp.137-138 참조.

주요사찰로 알려져 있으나,¹¹⁵ 동화사와 같은 산내에 위치한 염불암에 조성된 고려시대 마애불이 미륵존상과 지장보살이 아닌, 아미타불과 미륵보살인 사실은 고려중기 법상종의 성격과 관련해서 매우 흥미로운 점이다.¹¹⁶ 또한 나말여초 후삼국기부터 고려초기에 유행했던 거대 미륵상이나 거대 마애불이 흔히 법상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고려중기 중앙의 법상종 사찰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삼천사 마애불입상의 경우도 대형 상이 아니며, 법천사, 금산사 등에서도 거대한 마애불이 사찰 주변에 새겨진 예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은 고려중기 법상종 불교미술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금속 佛具의 명문을 통해서 알려진 것처럼 법천사에서 아미타회가 행해졌다면 금산사나 삼천사와 같은 법상종 사찰에서도 아미타회가 설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아미타회의 설행을 위해서 미타전[극락전, 무량수전]이 세워지고¹¹⁷ 그 내부에는 관경변상도와 같은 정토계 불화가 주벽을 장엄하였을 것이며 그 앞의 불단에는 아미타삼존불상이 봉안되어 있었을 것이다. 당시 최고의 장인들이 제작한 이 畫像들의 도상과 양식은 주변의 여러 사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특정 아미타불상의 도상이 정립되고 확산되는데 고려중기 법상종 사찰의 아미타불회가 적지 않은 역할을 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날 전해오는 고려시대 아미타불상은 고려후기에 조성된 상들이 대부분인데, 그 상들은 상호만 조금씩 다른 뿐 거의 동일한 도상을 보여주고 있다. 서산 개심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을 비롯해서 강화 청련사 목조아미타불좌상, 철원 심원사 목조아미타불좌상(현 서울 수국사), 아산 축봉사 목조아미타불좌상(현 서울 개운사), 화성 봉림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등, 고려 후기 12, 13세기의 아미타불상들은 봉안사찰은 전국으로 흩어져 있으나 불상의 형상은 자비롭고 위엄있는 상호와 양 손의 엄지와 중지를 맞댄 설법인의 수인, 착의형식, 앞으로 약간 숙인 자세 등, 많은 부분에서 서로 일치한다. 이들 아미타불상의 도상은 중국에서 만당기부터 널리 유행하여 우리나라에도 신라시대 9세기부터 영향을 주었던 아미타정인[묘관찰지인]을 결한 아미타불상이 아니라 중대신라이래 경주지역의 아미타불상에서 표현되었던 설법인을 결한 아미타불상의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설법인 아미타불상이라는 고전적인 도상이 고려후기에까지 크게 유행하였던 배경에는 고려중기 법상종 사찰에서 활발하게 조성되었던 아미타불의 도상이 정형화된 범본으로서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115 십지는 속리산에서 열린 永深의 법회에서 진표가 미륵보살로부터 받은 제 8간자와 9간자를 얻어 중악[팔공산]에 와서 창건했다고 전한다. 『三國遺事』권4 義解 5 心地繼祖; 홍채아, 「대구 동화사 비로암 석조비로자나불좌상에 대한 고찰 - 조성시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한국고대사탐구』 29(2018), pp.395-433 참조.

116 이 마애미륵보살상은 저부조로 새겨져있어 마치 그림을 조각으로 옮겨 놓은 듯한데, 양식면에서 고려후기의 특징을 보이고 있으나 통형의 고관을 쓰고 왼손을 내려서 다리 위의 중앙에 놓고 오른손은 들어서 지물을 잡은 모습에서 고려중기 미륵보살상의 도상을 따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17 김혜완, 「신라시대 고려전기 원주 불교의 전개와 신앙」, 『史林』 17(2004), p.25.

혜덕왕사비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현화사에서 매년 거행되던 미륵보살회는 지방의 여러 법상종 사찰에서도 설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미륵존상과 불화의 조성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인데, 도솔천 내원정토에 상생하기를 발원했던 혜덕왕사 소현의 신앙과 수행에서 볼 때, 보살형 미륵존상의 제작이 크게 유행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날 전하는 고려시대의 미륵존상은 논산 관촉사 석조보살입상, 부여 대조사 석조보살입상, 이천 장암리 마애보살좌상, 김천 은기리 마애보살좌상 등 고려초기 상들 뿐이며 고려중기의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고려후기 불화에서 ‘미륵보살’이 확실한 오불보관의 미륵보살도가 전하고 있어 고려중기 미륵보살화의 귀족적이고 화려한 면모를 유추할 수 있다.

해린이 보수한 현화사와 소현이 중창한 금산사의 모습이 ‘도솔천궁’ 같다는 표현에서 당시 법상종 사찰의 화려하고 장엄한 모습은 모두 ‘도솔천궁’에 비유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묘사는 법상종 사찰인 동화사에 대한 신라하대의 기록에서도 발견된다. 개성 五冠山에서 출가하고 속리산 범주사에서 구족계를 받은 了悟禪師 順之는 현안왕 3년(859)년 입당하기 전, 팔공산(公岳山)으로 가던 중에 神人을 만나 따라갔는데, 그곳의 화려함이 궁궐과 같았고 도솔천에서 설법하는 것 같았다고 한다. 이것은 순지가 동화사에서 열린 법회에 참석했던 이야기를 묘사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당시 동화사의 화려한 모습을 궁궐에 비유하고 도솔천에서의 설법에 비유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¹¹⁸

앞에서 말한 동화사의 화려함과 법회의 장엄함은 고려중기 법상종 사찰에서 추구되던 것으로서, 현존하는 현화사 석탑과 법천사 지광국사탑, 금산사 석조연화대좌를 통해서 보이는 고려초기 불교미술에서는 볼 수 없는 화려하고 귀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고려중기에 들어와서 불교미술의 패러다임이 바뀐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목종 9년(1006)에 천추태후 황보씨와 김치양의 발원으로 寫成된 『감지금자대보적경』 권 32 변상도는 고려왕실의 우아하고 귀족적 취향의 수준 높은 불교미술을 보여주며,¹¹⁹ 당시 금자대장경 사경에 화엄종 승려들이 참여한 점에서 볼 때,¹²⁰ 비단 법상종 미술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고려중기는 왕실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법상종이 가장 융성하였던 시기였으므로 그 변화의 주요 무대가 바로 법상종 사찰들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와 같은 불교미술의 새로운 경향은 蔡忠順이나 周佇와 같은 오대·북송의

118 『祖堂集』 권20, 五冠山 瑞雲和尚 順之; 金南允, 앞의 논문(1996), p.121.

119 최성은, 앞의 논문(2008), pp.209-246.

120 新田喜一郎, 「中國の裝飾經について」, 『大和文化』 50(1969), pp.1-7; 黃壽永, 「高麗國王發願의 金·銀字大藏」, 『考古美術』 3(1975), pp.5-6. 당시 寫成된 금자대장경의 初校는 華嚴業의 了眞炤世大使 曇昱이, 重校는 華嚴業大師 緣密이 맡았던 것으로 보아서 화엄종 승려들이 참여한 佛事였던 것으로 보인다.

귀화인들이 현종의 측근세력으로서 고려조정에서 활약하고,¹²¹ 현종대에 초조대장경 간행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북송으로부터 활발하게 전래된 불교문화의 영향으로 더욱 고조되었던 것 같다.¹²²

고려중기 불교미술의 경향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또 다른 배경으로 신라 舊귀족의 부상을 통해서 신라왕실의 세련되고 귀족적인 미술에 대한 선호가 커졌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순왕의 백부인 신라왕족 김억렴의 외손자였던 현종의 왕위계승과 그의 세 아들이 덕종(1031-1034), 정종(1034-1046), 문종(1046-1083)의 3대에 걸쳐 즉위했던 고려중기 왕실과 그 주위에서 득세한 신라계 세력들에 의해¹²³ 과거 신라의 왕경미술에 대한 회귀현상 또는 복고현상이 나타났던 것이 그것이다. 또한 이러한 복고성향에 고려왕실과 중앙 불교문화계에 전해졌던 북송의 화려하고 우아한 문물은 귀족적인 고려 불교미술이 형성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왕실과 귀족의 후원을 받으면서 불교계의 주류로 득세했던 법상종 사찰들에서 이루어진 불교미술에는 同 시기의 화려하고 귀족적인 고려왕실과 중앙 불교계의 문화가 반영되어 있었을 것이며, 이 시기 형성된 불교미술의 도상과 양식은 이후 고려 불교미술의 곳곳에 그 전통이 이어져 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121 현화사비를 찬한 뛰어난 문장가였던 周佇는가 북송의 溫州 사람으로 목종연간에 상선을 타고 고려에 건너왔던 인물이었으며, 주저를 천거했던 채충순은 광종대에 고려에 귀화하여 예부시랑을 지낸 북송 泉州출신의 蔡仁範(934-998)의 아들로 생각되고 있다. 채인범은 持禮使를 따라 건덕 8년(970)에 고려에 건너와 경전과 역사에 통달하고 뛰어난 문장으로 여러 왕을 보좌하였고 死後 예부상서로 추증되었던 인물이다. 『高麗史』 권94 蔡忠順傳; 「채인범 묘지명」(1024년), 김용선, 『역주 고려묘지명집성(개정판)』 上(춘천: 한림대출판부, 2006), pp.4-8 및 p.6의 각주 7.

122 최성은, 앞의 책(2013), pp.183-186.

123 『고려사』 권88 신성왕태후 김씨전; 丸龜金作, 「高麗朝의 新羅系勢力」, 『朝鮮學報』 48(1968), pp.275-288, 全基雄, 「高麗初期의 新羅系勢力과 그 動向」, 『역사와 세계』 17(1993), pp.143-146, pp.151-161; 金昌賢, 「고려 현화사비 분석」, 『목간과 문자』 9(2012), pp.69-101 참조.

IV. 맺음말

고려중기 법상종의 중심사찰이었던 개성 현화사와 서울 삼천사, 원주 법천사, 김제 금산사에 전해오는 불교조각과 관련된 유물과 문헌기록을 중심으로 이 시기 법상종 미술을 살펴보았다. 현종에 의해 창건된 현화사는 ‘도솔천궁’에 비유될 정도의 규모였으나 불전, 법당, 승경전, 봉래전 등의 주요 전각안에 봉안되었던 화려하고 장엄하였을 존상들은 지금 전하지 않으며, 칠층석탑의 부조에 보이는 불회의 장면과 유리건판 사진으로 전해오는 석불좌상을 통해 그 일면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칠층석탑의 규모와 탑신에 부조된 불회의 장면에서 고려중기 법상종 석조미술의 우수성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양감표현에 고려중기 11세기 무렵 수도 개경을 비롯한 경기, 강원지역 일대 불상들에서 나타나는 부드럽고 조각면이 둥근 조각기법이 적용되었음을 찾아볼 수 있어, 이와 같은 조각기법이 당시 석불좌상의 주된 표현방식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삼천사는 최근의 발굴을 통해서 소형의 석조보살두와 금동제 손가락 등이 출토되었으나 이들은 고려중기 조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자료이다. 다만 삼천사지 입구의 마애불입상은 고려중기 불상으로 추정되고 조각기법 면에서도 그 시기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법천사지에서는 금동불, 석불상들이 수습되거나 출토되었는데, 금동불상을 비롯해서 석불, 보살입상, 공양보살상등은 훼손이 심한 상태로 발견되었거나 소형의 상이지만 고려중기 불교조각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석조공양보살좌상이 원각상으로 뿐 아니라 석등 화사석편으로 발견된 것은 연산 개태사지 석조공양보살좌상이나 강릉 신복사지 석조공양보살좌상과 함께 고려초·중기에 탑앞에 놓이는 공양보살상이 유행했음을 말해준다. 또한 지광국사탑 옥개석에 부조된 사방불의 존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에 대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어 앞으로 신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금산사는 혜덕왕사 소현의 비문을 통해서 畫像의 조성이나 불전의 건축 등에 관해 비교적 다양한 기록이 전해온다. 노사나불상과 현장, 자은대사의 화상을 봉안한 것이라든지 미륵존상의 화상 앞에서 매년 예참하고 설재했던 것, 석가여래와 현장, 자은대사, 해동육조의 화상을 그려 여러 사찰에 유포했던 것 등은 당시 여러 법상종 사찰에서 이루어진 신앙의례와 그에 따른 畫像의 봉안 양상을 엿볼 수 있으며 법상종의 정통성과 위상을 확립하고자 했던 혜덕왕사의 지속적인 노력을 알 수 있다. 현존하는 금산사 석조연화대좌는 그 크기와 세련되고 정지한 조형성에서 당시 불교조각의 높은 수준을 짐작하게 한다.

앞의 네 사찰에서 전해오는 유물과 금석문 자료를 보면, 고려중기 법상종에서는 태현계 법상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아미타회와 미륵보살회가 사찰마다 설행되었던 것은 특정 도상의 아미타불상이나 미륵보살상이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북송의 화려하고 귀족적인 불교미술의 새로운 경향이 전해져서 유행했던 시기에 융성했던 법상종 사찰이 바로 고려중기 불교미술의 주요 무대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그 배경에는 오대, 북송에서 고려로 귀화했던 왕실 측근세력의 활약과 현종 즉위를 전후하여 부상하였던 신라 舊귀족의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高麗史』

『高麗史節要』

『宋高僧傳』

『신증동국여지승람』

강원문화재연구소, 『原州 法泉寺址 2차 發掘調査』, 2003.

『法泉寺 原州法泉寺址 3차 발굴조사』, 2003.

『原州 法泉寺址 4차 發掘調査』, 2004.

강원문화재연구소·원주시, 『原州 法泉寺 I 第1區域 發掘調査 報告書』, 2009.

강원고고문화연구원, 『원주 법천사지의 재조명』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4.

원주시·江原考古文化研究院, 『原州 法泉寺 II - III 구역 발굴조사 보고서』, 2014.

원주시·江原考古文化研究院, 『原州 法泉寺 III - II 구역 발굴조사 보고서』, 2017.

서울역사박물관, 『북한산 삼천사지 탐비구역 발굴조사 약보고서』, 2008.

『삼천사지 발굴에서 전시까지』, 2008.

『북한산 삼천사지 발굴조사보고서』, 2011.

朝鮮總督府 編, 『朝鮮金石總覽』上, 서울: 亞細亞文化社, 1976.

韓國佛敎研究院, 『韓國의 寺刹의 11 金山寺』, 一志社, 1977.

海眼 編著(1635년), 『金山寺事績』, 『佛敎學報』3-4, 1966.

『미륵도량 모악산 金山寺(본사편)』, 김제: 금산사 금산사지 간행위원회, 2005.

金龍善, 『譯註高麗墓誌銘集成』, 한림대학교출판부, 2006.

權相老, 『朝鮮佛敎史概說』, 1939.

문명대, 『한국의 불상조각2-원음과 고전미』, 서울: 예경, 2003.

엄기표,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 서울: 학연문화사, 2003.

최성은, 『고려시대 불교조각 연구』, 서울: 일조각, 2013.

韓其汶, 『高麗寺院의 構造와 機能』, 서울: 민족사, 1998.

黃壽永, 『韓國金石遺文』, 서울: 일지사, 1976.

許興植, 『高麗佛敎史研究』, 서울: 一潮閣, 1986.

姜炳喜, 『高麗 玄化寺址 七層石塔에 대하여』, 『河炫網敎授停年紀念論叢: 韓國史의 構造와 展開』, 혜안, 2000.

高裕燮, 『開城 玄化寺塔』, 『韓國塔婆研究各論草稿』, 1976.

金南允, 『고려중기 불교와 法相宗』, 『한국사론』28, 1992.

『신라법상종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金東賢, 『原城 法泉寺址 發見 石燈火舍片』, 『考古美術』제6권 제3·4호 통권 56·57, 1965.

金杜珍, 『高麗初 法相宗과 그 思想』, 『韓治勳博士停年紀念 史學論叢』, 서울: 지식산업사, 1981.

『현종대 이후 화엄종, 법상종의 대두와 불교계의 모순』, 『한국사 16- 고려 전기의 종교와 사상』, 국사편찬위원회, 1994.

- 김수태, 「新羅末 高麗前期 淸州金氏와 法相宗」, 『中原文化論叢』 1, 1997.
- 金映遂, 「高麗兩宗에 對하여」, 『震檀學報』 8, 1937.
- 金煥泰, 「新羅 占察法會와 眞表의 敎法研究」, 『佛敎學報』 9, 1972.
- 金仁德, 「高麗時代 瑜伽思想의 展開와 彌勒信仰」, 『韓國彌勒思想研究』,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87.
- 김혜완, 「삼각산 삼천사지 대지국사비의 복원과 법경의 생애」, 『북한산 삼천사지 탐비구역 발굴조사 약보고서』, 서울역사박물관, 2008.
- 권강미, 「유리건판에 비친 일제강점기 북한지역 불교문화재 조사」, 『유리건판으로 보는 북한의 불교미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2집』, 국립중앙박물관, 2014.
- 南東信, 「고려 전기 금석문과 法相宗」, 『佛敎研究』 29, 2009.
- 「七長寺慧炤國師碑銘을 통해 본 鼎賢의 생애와 사상」, 『안성 칠장사와 혜소국사 정현』, 사회평론, 2011.
- 문명태, 「신라 법상종(瑜伽宗)의 성립문제와 그 미술(상)(하)」, 『歷史學報』 62·63, 1974.
- 「高麗 法相宗美術의 展開와 玄化寺 七層石塔 佛像彫刻의 研究」, 『講座美術史』 17, 2001.
- 박광연, 「고려전기 유가업의 법화경 전통 계승과 그 의미」, 『역사와 현실』 71, 2009.
- 「신라 진표(眞表)의 미륵신앙 재고찰」, 『佛敎學研究』 37, 2013.
- 박상준, 「고려중기 법상종계 비(碑) 조각의 연구」, 『강좌미술사』 26, 2006.
- 박현진, 「高麗中期 慧德王師 韶顯의 활동과 위상」, 『全北史學』 45, 2014.
- 史文卿, 「11세기 후반 慧德王師 韶顯의 金山寺 光敎院 설치와 法相宗」, 『忠南史學』 10, 1998.
- 孫永文, 「高麗時代 龍華手印 彌勒圖像의 研究」, 『美術史學研究』 252, 2006.
- 「平壤 永明寺 石造 佛龕」, 『聖寶』 5, 2003.
- 엄기표, 「삼천사 대지국사탑비의 양식과 미술사적 의의」, 『북한산 삼천사지 발굴조사보고서』, 2011.
- 이용진, 「法泉寺址 출토 戊子銘 佛敎工藝品 연구」, 『佛敎美術』 23, 2012.
- 이인재, 「법천사와 법천사 연구의 새로운 진전을 위하여」, 『耘谷學會研究論叢』 2, 2006.
- 조경시, 「高麗 顯宗의 佛敎信仰과 정책」, 『한국사상사』 29, 2007.
- 지현병, 「원주 법천사지 발굴조사 현황과 과제」, 『耘谷學會研究論叢』 2, 2006.
- 蔡印幻, 「新羅 眞表律師 研究 I ; 修懺의 行蹟과 系譜」, 『佛敎學報』 23, 1986.
- 崔柄憲, 「高麗中期 玄化寺의 創建과 法相宗의 隆盛」, 『韓治勳博士 停年紀念 史學論叢』, 지식산업사, 1981.
- 「승려-혜덕왕사 소현과 귀족불교」, 『한국사시민강좌』 39, 2006.
- 최성은, 「고려 현종대 석탑부조의 연구」, 『講座美術史』 30, 2006.
- 「원주 법천사지의 고려시대 불교조각」, 『美術史學』 29, 2015.
- 최순우, 「三角山 三川寺 大智國師碑」, 『미술자료』 10, 1965.
- 최연식, 「의적의 사상 경향과 海東 법상종에서의 위상」, 『佛敎學研究』 6, 2003.
- 黃壽永, 「高麗石塔의 研究-在銘作品을 중심으로」, 『考古美術』 175-176, 1987.
- 허형욱, 「불국사 석조사리탑의 조성시기와 성격 고찰」, 『동원학술논문집』 13, 국립중앙박물관·한국고고미술연구소, 2012.
- 토니노 푸치오니, 「高麗時代 法相宗 敎團의 推移」,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96.

Buddhist Sculptures at Monasteries of Beobsang School of Buddhism in mid Goryeo Period

Choe Songeun *

This paper investigates Buddhist sculptures of mid-Goryeo period at four Beobsang School(法相宗) monasteries – Hyeonhwasa(玄化寺), Samcheonsa(三川寺), Beobcheonsa(法泉寺) and Keumsansa(金山寺). Beobsang School of Buddhism flourished in the 11th century under the royal support, especially of King Hyeonjong(r.1009~1031), who became a monk at a temple of Beopsang School before ascending the throne. King Hyeonjong constructed Hyeonhwasa in 1018 in Gaeseong, the capital of Goryeo, for the good karma of his past parents.

Reliefs on the surfaces of the seven storied stone pagoda at Hyeonhwasa show high quality craftsmanship and aristocratic delicacy characteristic of mid Goryeo Buddhist art. Text engraved on the stele of Hyeonhwasa describe its sumptuous buildings and decorations, which can be compared to those of Maitreya's palace on Tushita Heaven. The three other temples have monumental artifacts, including the delicately carved Rock-cut standing Buddha image at Samcheonsa, the exquisite Sarira Pagoda of Reverend Priest Jiguang(智光國師, 984~1070) at Beobcheonsa, and the decorative Stone Lotus Pedestal at Keumsansa.

Extant images and materials of Beobsang School demonstrate that the Taehyun line of the Unified Silla period was strongly succeeded by the Beobsang School in the 11th century. While the large Maitreya images of the late Unified Silla and early Goryeo period had been regarded as symbolic icons of Beobsang School, they have little to do with Beobsang School of the 11th century. Whereas, the iconography of Maitreya Bodhisattva wearing a high cylindrical crown and a Kasaya robe like a Buddha image seems to have become very popular due to the spread of annual rituals of Maitreya of Beobsang School.

* Professor, Duksung Women's University

Elegance and grace shown in the pagodas and images at the four Beobsang monasteries are not necessarily stylistic features and traits of Buddhist art of Beobsang School. Rather, they are the general trend of Buddhist art in the 11th century, most likely influenced by Buddhist art of the Five Dynasties and Northern Song, as well as the court art of Unified Silla, since a number of government officials among King Hyeonjong's close advisors were naturalized Chinese and King Hyeonjong's father was the only descendant of the Unified Silla royal family from his mother side.

Keywords : mid Goryeo period, Goryeo Buddhist sculpture, Beobsang School of Buddhism, Hyeonhwasa, Samcheonsa, Beobcheonsa, Keumsansa.